자료 제공: 한말연구학회
자료 입력: 허재영 회원
자료 내용: 월인석보 권1

<월인석보>

◉ 釋譜詳節 序 : 序는 글 밍ᄀᆞ론 ᄠᅳ들 子細히 써 後人 사ᄅᆞᄆᆞᆯ 알의ᄒᆞ논 거시라.(월석 석보서 1)

◉ 佛爲三界之尊ᄒᆞ샤 : 佛은 부톄시니라 爲ᄂᆞᆫ ᄃᆞ외야 겨실씨라 三界ᄂᆞᆫ 欲界 色界 無色界라 之ᄂᆞᆫ 입겨지라 尊은 노ᄑᆞ신 부니시니라 ᄒᆞ논 ᄠᅳ디라.(월석 석보서 1) * 분(의존명사)

☞ 부톄 三界옛 尊이 ᄃᆞ외야 겨샤 弘渡群生ᄒᆞ시ᄂᆞ니 : 弘은 너 ******濟渡ᄒᆞᆯ씨라 群은 무리라 生은 世界예 나아 사라ᄒᆞ시ᄂᆞᆫ 것ᄃᆞᆯ히라.(월석 석보서 1)

◉ 衆生ᄋᆞᆯ 너비 濟渡ᄒᆞ시ᄂᆞ니 無量 功德이 그지 업서 몯내 혜ᅀᆞᄫᆞᆯ 功과 德괘 人天 所不能盡讚이시니라 : 無量은 몯내 혤씨라. 人은 사ᄅᆞ미라 天은 하ᄂᆞᆯ히라 所ᄂᆞᆫ 배라 不能은 ***ᄒᆞᄂᆞᆫ ᄠᅳ디라 盡은 다ᄋᆞᆯ씨라 讚은 기릴씨라.(월석 석보서 1-2)

☞ 사ᄅᆞᆷᄃᆞᆯ콰 하ᄂᆞᆯᄃᆞᆯ히 내 기리ᅀᆞᆸ디 몯ᄒᆞᅀᆞᆸᄂᆞᆫ 배시니라.(월석 석보서 2)

◉ 世之學佛者ㅣ :世ᄂᆞᆫ 世間이라 學은 ᄇᆡ홀씨라 者ᄂᆞᆫ 사ᄅᆞ미라 ᄒᆞ듯ᄒᆞᆫ ᄠᅳ디라.(월석 석보서 2)

☞ 世間애 부텻 道理 ᄇᆡ호ᄆᆞᄫᆞ리(월석 석보 서2)

◉ 鮮有知出處始終은 : 鮮有는 ᄑᆞᆺ 바리 잇디 아니타 ᄒᆞ논 ᄠᅳ디라. 知ᄂᆞᆫ 알씨라. 出은 나아ᄒᆞ닐 씨라 處는 나아 ᄒᆞ니디 아니ᄒᆞ야 ᄀᆞ마니 이실씨라. 始ᄂᆞᆫ 처ᅀᅥ미라. 終은 마ᄎᆞ미라.(월석 석보서 2)

☞ 부텨 나아 ᄃᆞ니시며 ᄀᆞ마니 겨시던 처ᅀᅥᆷ ᄎᆞᄆᆞᆯ 알리노니 비록 알오져 ᄒᆞ리라도 ᄯᅩ 八相을 넘디 아니ᄒᆞ야셔 마ᄂᆞ니라.(월석-석보 서:3) 鮮有는 ᄑᆞᆺ 바리 잇디 아니타 ᄒᆞ논 ᄠᅳ디라. 知ᄂᆞᆫ 알씨라. 出은 나아ᄒᆞ닐 씨라 處는 나아 ᄒᆞ니디 아니ᄒᆞ야 ᄀᆞ마니 이실씨라. 始ᄂᆞᆫ 처ᅀᅥ미라. 終은 마ᄎᆞ미라.(월석 석보서 2-3): 雖ᄂᆞᆫ 비록ᄒᆞ논 ᄠᅳ디라. 欲은 ᄒᆞ고져 ᄒᆞᆯ씨라. 亦은 ᄯᅩ ᄒᆞ논 ᄠᅳ디니 사ᄅᆞ미 다 모ᄅᆞ거늘 其中에 알오져 ᄒᆞ리 비록 이셔도 仔細히 모ᄅᆞᆯᄊᆡ 쇠라 ᄒᆞ니라. 不은 아니ᄒᆞ논 ᄠᅳ디라. 過ᄂᆞᆫ 너믈씨라. 八은 여ᄃᆞᆯ비라. 相은 양ᄌᆡ라. 八相은 兜率來儀 毘藍降生 四門遊觀 逾城出家魔鹿苑轉法雙林 涅槃이라. 而ᄂᆞᆫ 입겨지라. 止ᄂᆞᆫ 마ᄂᆞ다 ᄒᆞ논 ᄠᅳ디라.(월석 석보서 2-3)

◉ 頃에 因追薦ᄒᆞᅀᆞ바(월석-석보 서:3) 頃은 近間이라 因은 그 이릐 젼ᄎᆞ로 ᄒᆞ듯 ᄒᆞᆫ ᄠᅳ디라. 追薦은 爲ᄒᆞᅀᆞ바 佛事ᄒᆞᅀᆞ바 됴ᄒᆞᆫ 싸해 가 나시게 ᄒᆞᆯ씨라.(월석-석보 서:2)

☞ 近間애 追薦ᄒᆞᅀᆞ보ᄆᆞᆯ 因ᄒᆞᅀᆞ바(월석-석보 서:4)

◉ 爰采諸經ᄒᆞ야 : 爰은 이제 ᄒᆞ논 ᄠᅳ디라. 采ᄂᆞᆫ ᄀᆞᆯ힐씨라. 諸는 여러 가지라. 經은 부텻 그리라.(월석-석보 서:4)

☞ 이저긔 여러 經에 ᄀᆞᆯ히여 내야 (월석-석보 서:4)

◉ 別爲一書ᄒᆞ야 : 別은 닫내야 ᄒᆞ듯ᄒᆞᆫ ᄠᅳ디라. 爲ᄂᆞᆫ ᄆᆡᇰᄀᆞᆯ씨라. 一은 ᄒᆞ나히라. 書는 글와리라.(월석-석보 서:4)

☞ 各別히 ᄒᆞᆫ 그를 ᄆᆡᇰᄀᆞ라.(월석-석보 서:4)

◉ 名之曰 釋譜詳節이라. : 名은 일후미니 名之ᄂᆞᆫ 잃룸지흘씨라. 曰은 ᄀᆞ로ᄃᆡ ᄒᆞ논 ᄠᅳ디라. 釋은 釋迦ㅣ시니라. 譜ᄂᆞᆫ 平生앳 처섬 乃終ㅅ 이를 다 쑨 글와리라. 詳은 조ᅀᅳᆨᄅᆞᄫᆡᆫ 말란 仔細히 다 ᄲᅳᆯ씨라. 節은 조ᅀᅳᆨᄅᆞᆸ디 아니ᄒᆞᆫ 말란 더러 ᄲᅳᆯ씨라.(월석-석보 서:4)

☞ 일훔 지허 ᄀᆞ로ᄃᆡ 釋譜詳節이라ᄒᆞ고(월석-석보 서: 4-5)

◉ 旣據所次ᄒᆞ야 : 旣ᄂᆞᆫ ᄒᆞ마 ᄒᆞ논 ᄠᅳ디라. 據는 브틀씨라. 次ᄂᆞᆫ 次第 혜여 글왈 ᄆᆡᇰᄀᆞᆯ씨라.(월석-석보 서:5)

☞ ᄒᆞ마 次第 혜여 ᄆᆡᇰᄀᆞ론 바를 브터 (월석-석보 서 : 5)

◉ 繪成世尊成道之迹ᄒᆞᅀᆞᆸ고 : 繪ᄂᆞᆫ 그릴씨라. 成은 일울씨라. 世尊은 世界예 ᄆᆞᆺ 尊ᄒᆞ시닷 ᄠᅳ디라. 道ᄂᆞᆫ 부텻 法이라 迹은 처섬으로셔 ᄆᆞᄎᆞᆷ 니르리 ᄒᆞ샨 믈읫이리라.(월석-석보 서 :5) *-으로셔

☞ 世尊 일우샨 이릐 양ᄌᆞ를 그려 일우ᅀᆞᆸ고.(월석-석보 서 :5)

◉ 又以正音으로 就加譯解ᄒᆞ노니 : 又는 ᄯᅩ ᄒᆞ논 ᄠᅳ디라. 以ᄂᆞᆫ ᄡᅥ ᄒᆞ논 ᄠᅳ디라. 正音은 正ᄒᆞᆫ 소리니 우리 나랏 마를 正히 반ᄃᆞ기 올히 ᄡᅳ논 그릴씨 일후믈 正音이라 ᄒᆞᄂᆞ니라. 就는 곧 因ᄒᆞ야 ᄒᆞ듯 ᄒᆞᆫ ᄠᅳ디니 漢字로 몬져 그를 ᄆᆡᇰᄀᆞᆯ오 그를 곧 因ᄒᆞ야 正音으로 ᄆᆡᇰᄀᆞᆯ씨 곧 因ᄒᆞ다 ᄒᆞ니라. 加ᄂᆞᆫ 힘드려 ᄒᆞ다 ᄒᆞ듯ᄒᆞᆫ ᄠᅳ디라. 譯은 飜譯이니 ᄂᆞᄆᆡ 나랏 그를 제 나랏 글로 고텨 ᄲᅳᆯ씨라.(월석-석보 서 :5-6)

☞ ᄯᅩ 正音으로ᄡᅥ 곧 因ᄒᆞ야 더 飜譯ᄒᆞ야 사기노니 (월석-석보 서 : 6)

◉ 庶幾人人이 易曉ᄒᆞ야 而歸依三寶焉이니라 : 庶幾ᄂᆞᆫ 그리ᄒᆞ긧고 ᄇᆞ라노라 ᄒᆞ논 ᄠᅳ디라. 人人은 사ᄅᆞᆷ마대라. 易ᄂᆞᆫ 쉬ᄫᆞᆯ씨라. 曉ᄂᆞᆫ 알씨라. 歸ᄂᆞᆫ 나ᅀᅡ갈씨라. 依ᄂᆞᆫ 브틀씨라. 三寶ᄂᆞᆫ 佛와 法와 僧괘라. 焉은 입겨지라.(월석-석보 서 : 6) * 븥다(依)/ 마다

☞ 사ᄅᆞᆷ마다 수ᄇᆡ 아라 三寶애 나ᅀᅡ가 븓긧고 ᄇᆞ라노라.(월석-석보 서 : 6)

◉ 正統 十二年 七月 二十五日에 首陽君 諱 序ᄒᆞ노라 : 正統은 이젯 皇帝 셔신 後로 샹녜 ᄡᅳᆫ 힛 일후미라. (월석-석보 서 : 6)

◉ 御製月印釋譜序: 夫眞源이 廓廖ᄒᆞ고 性智湛寂ᄒᆞ며 : 夫ᄂᆞᆫ 말ᄉᆞᆷ 始作ᄒᆞᄂᆞᆫ 겨체 ᄡᅳᄂᆞᆫ 字ㅣ라. 眞源은 眞實ㅅ 根源이라 廓은 뷜씨오 廖ᄂᆞᆫ 괴외ᄒᆞᆯ씨라. 湛은 ᄆᆞᆯᄀᆞᆯ씨오 寂은괴외ᄒᆞᆯ씨라.(월석 서:1)

☞ 眞實ㅅ 根源이 뷔여 괴외ᄒᆞ고 性智 ᄆᆞᆰ고 괴외ᄒᆞ며(월석 서:1)

◉ 靈光이 獨耀ᄒᆞ고 法身이 常住ᄒᆞ야 : 光은 비치라. 獨은 ᄒᆞ오ᅀᅢ오 耀ᄂᆞᆫ 빗날씨라. 身은 모미라. 住ᄂᆞᆫ 머므러 이실씨라.(월석 서:1)

☞ 靈ᄒᆞᆫ 光明이 ᄒᆞ오ᅀᅡ 빗나고 法身이 샹녜 이셔.(월석 서:1)

◉ 色相이 一泯ᄒᆞ며 能所ㅣ 都亡ᄒᆞ니 : 色은 비치오 相은 얼구리라. 泯은 업슬씨라. 能은 내호미오 所ᄂᆞᆫ 날 對ᄒᆞᆫ 거시라. 都ᄂᆞᆫ 다 ᄒᆞᄂᆞᆫ ᄠᅳ디오. 亡은 업슬씨라.(월석 서:1-2)

☞ 色相이 ᄒᆞᆫ가지로 업스며 能所ㅣ 다 업스니(월석 서:2)

◉ 旣無生滅커니 焉有去來리오.(월석 서:2) : 生은 날씨오 滅은 업슬씨라 焉은 엇뎨ᄒᆞᄂᆞᆫ ᄠᅳ디오 有는 이실씨라. 去ᄂᆞᆫ 갈씨오 來ᄂᆞᆫ 올씨라.(월석 서:2)

☞ ᄒᆞ마 나묘 업수미 업거니 엇뎨 가며 오미 이시리오.(월석 서:2)

◉ 只緣妄心이 曁起ᄒᆞ면 識境이 競動ᄒᆞ거든 : 只ᄂᆞᆫ 오직 ᄒᆞᄂᆞᆫ ᄠᅳ디오 緣은 브틀씨라. 妄心은 妄量앳 ᄆᆞᅀᆞ미라 曁은 누네 어른디 날ᄊᆞᄉᆡ오 起ᄂᆞᆫ 닐씨라. 境은 境界라. 競은 ᄃᆞ톨씨오 動은 뮐씨라.(월석 서:2)

☞ 오직 妄量앳 ᄆᆞᅀᆞ미 믄득 니러나ᄆᆞᆯ 브트면 識境이 난겻 뮈여 나거든 (월석 서:3)

◉ 攀緣取著ᄒᆞ야 恒繫業報ᄒᆞ야 : 攀은 혈씨라 取ᄂᆞᆫ 가질씨오 著ᄂᆞᆫ 브톨씨라 恒은 長常이오 繫ᄂᆞᆫ 뮐씨라 業은 이리오 報ᄂᆞᆫ 가풀씨니 제 지ᅀᅥᆫ 이릐 됴ᄒᆞ며 구주ᄆᆞ로 後에 됴ᄒᆞ며 구즌 가포ᄆᆞᆯ 얻ᄂᆞ니라.(월석 서 :3)

☞ 緣ᄋᆞᆯ ᄇᆞᆮᄃᆞᄀᆡ야 가져 長常 業報애 ᄆᆡ여 (월석 서:3)

◉ 遂昧眞覺於長夜ᄒᆞ며 瞽智眼於永劫ᄒᆞ야 : 遂는 브틀씨니 아모다 ᄉᆞᆯ브터 이러타 ᄒᆞᄂᆞᆫ 겨치라. 昧ᄂᆞᆫ 어드ᄇᆞᆯ씨라 覺은 알씨라. 長夜ᄂᆞᆫ 긴 바미라. 瞽ᄂᆞᆫ 눈 멀씨라. 眼은 누니라 永은 길씨라.(월석

서 :3)

☞ 眞實ㅅ 覺ᄋᆞᆯ 긴 바ᄆᆡ 어듭게 ᄒᆞ며 智慧ㅅ 준늘긴 劫에 멀워 (월석 서:4)

◉ 輪廻六道而不暫停ᄒᆞ며 焦煎八苦而不能脫ᄒᆞᆯᄊᆡ : 輪은 술위ᄠᅵ니 輪廻ᄂᆞᆫ 횟돌씨라. 六道ᄂᆞᆫ 여슷 길히라 停은 머믈씨라 焦煎은 봇ᄀᆞᆯ씨라. 脫은 버슬씨라.(월석 서:4)

☞ 여슷 길헤 외도녀 갌간도 머므디 몯ᄒᆞ며 여듧 受苦애 봇겨 能히 벗디 몯ᄒᆞᆯᄊᆡ(월석 서:4)

◉ 我 佛如來雖妙眞淨身居常寂光土ᄒᆞ시나 : 我ᄂᆞᆫ 내라 淨은 조ᄒᆞᆯ씨라. 居는 살씨라. 土ᄂᆞᆫ 짜히라. 妙眞淨身은 淸淨法身을 ᄉᆞᆯᄫᅳ시니라. 무로ᄃᆡ 寂寂호미 일후미 긋거늘 엇뎨 法身이라 일훔 지ᄒᆞ뇨. 對答호ᄃᆡ 法이 實로 일훔 업건마ᄅᆞᆫ 機ᄅᆞᆯ 爲ᄒᆞ야 ᄀᆞᆯᄒᆞ야 니ᄅᆞ노라 ᄒᆞ야 寂寂體ᄅᆞᆯ ᄉᆞᆯ보ᄃᆡ 구틔여 法身이라 일ᄏᆞᆯᄌᆞᆸᄋᆞ니라. 常은 곧 法身이오 寂은 곧 解脫이오 光은 곧 般若ㅣ니 옮디 아니ᄒᆞ며 變티 아니호미 常이오 이슘 여희며 업숨 여희유미 寂이오 俗 비취며 眞 비취유미 光이라.(월석 서:5)

☞ 우리 부텨 如來 비록 妙眞淨身이 常寂光土애 사ᄅᆞ시나 : 釋迦牟尼ㅅ 일후미 毗盧遮那ㅣ시니 그 부텨 住ᄒᆞ신 짜히 일후미 常寂光이라.(월석 서: 5)

◉ 以本悲願運無緣慈現神通力 : 運은 뮈울씨라. 現은 나톨씨라. 力은 히미라. (월석 서: 5)

☞ 本來ㅅ 悲願으로 無緣 慈ᄅᆞᆯ 뮈우샤 神通力을 나토샤.(월석 서: 6)

◉ 降誕閻浮示成正覺ᄒᆞ샤: 降誕은 ᄂᆞ려나실씨라. 示ᄂᆞᆫ 뵐씨라.(월석 서: 6)

☞ 閻浮에 ᄂᆞ려나샤 正覺 일우샤ᄆᆞᆯ 뵈샤.(월석 서:6)

◉ 號天人師ㅣ시며 稱一切智사. : 稱은 일ᄏᆞᄅᆞᆯ씨라.(월석 서: 6)

☞ 일후미 天人師ㅣ시며 일ᄏᆞᆯᄌᆞ보미 一切智샤.(월석 서: 6)

◉ 放大威光ᄒᆞ샤 破魔兵衆ᄒᆞ시고 : 放은 펼씨라. 大ᄂᆞᆫ ᄀᆞᆯ씨라. 威ᄂᆞᆫ 저플씨라. 破ᄂᆞᆫ ᄒᆞ마 ᄇᆞ릴씨라. 兵은 잠개 자ᄇᆞᆫ 사ᄅᆞ미오 衆은 할씨라.(월석 서: 6)

☞ 큰 威光을 펴샤 魔兵衆을 ᄒᆞ야 ᄇᆞ리시고.(월석 서:7) *ᄒᆞ야ᄇᆞ리다=破

◉ 大啓三乘ᄒᆞ시며 廣演八敎ᄒᆞ샤 : 啓ᄂᆞᆫ 열씨라. 廣은 너블씨오 演은 부를씨라.(월석 서: 7)

☞ 三乘ᄋᆞᆯ 크게 여ᄅᆞ시며 八敎ᄅᆞᆯ 너비 부르샤.(월석 서:7)

◉ 潤之六合ᄒᆞ시며 沾之十方ᄒᆞ샤 : 潤은 저질씨라. 合은 對ᄒᆞ야 서르 ᄠᅡᆨ마ᄎᆞᆯ씨니 六合은 天地 四方이라.(월석 서: 7)

☞ 六合애 저지시며 十方애 저지샤.(월석 서: 7)

◉ 言言攝無量妙義ᄒᆞ시고 句句ㅣ 含恒沙法門ᄒᆞ샤 : 攝은 모도 디닐씨라. 義ᄂᆞᆫ ᄠᅳ디라. 句ᄂᆞᆫ 말ᄊᆞᆷ 그츤 ᄯᅡ히라. 含은 머구믈씨라.(월석 서: 7-8)

☞ 말ᄊᆞᆷ마다 그지 업슨 微妙ᄒᆞᆫ ᄠᅳ들 모도 자ᄇᆞ시고 句마다 恒沙法門을 머구므샤.(월석 서: 8)

◉ 開解脫門ᄒᆞ샤 納淨法海ᄒᆞ시니 : 開ᄂᆞᆫ 열씨라. 解脫은 버슬씨니 아모ᄃᆡ도 마ᄀᆞᆫᄃᆡ 업서든 긇ᄠᅴ 걸위디 몯ᄒᆞᆯ씨라. 納은 드릴씨오 海ᄂᆞᆫ 바ᄅᆞ리라.(월석 서: 8)

☞ 解脫門을 여르샤 淨法海예 드리시니 (월석 서: 8)

◉ 其撈摝人天ᄒᆞ시며 拯濟四生ᄒᆞ신 功德을 可勝讚哉아. : 撈ᄂᆞᆫ 므레 가릴씨오 摝은 ᄠᅥᆯ씨라 拯은 거려낼씨오 濟ᄂᆞᆫ 건닐씨라. 可ᄂᆞᆫ 어루ᄒᆞᄂᆞᆫ 마리오 勝은 이긜씨라. 哉ᄂᆞᆫ 입겨체 ᄡᅳᄂᆞᆫ 字ㅣ라.(월석 서: 8-9)

☞ 人天을 거려내시며 四生ᄋᆞᆯ 거려 濟度ᄒᆞ신 功德을 어루 이긔여 기리ᄉᆞᄫᆞ려.(월석 서: 9)

◉ 天龍所誓願以流通이시며 國王所囑以擁護ㅣ니 (월석 서: 9)

☞ 天龍이 誓願ᄒᆞ샤 流通ᄒᆞ시논 배시며 國王이 付囑 받ᄌᆞ바 擁護ᄒᆞ논 배니.(월석 서: 9)

◉ 昔在丙寅ᄒᆞ야
韶憲王后ㅣ 奄棄榮養ᄒᆞ야시ᄂᆞᆯ 痛言在疚ᄒᆞ야 ᄆᆡᆼ知攸措ᄒᆞ다니 : 昔은 녜라. 在ᄂᆞᆫ 이실씨라. 奄은 믄득ᄒᆞ논 ᄠᅳ디라. 棄ᄂᆞᆫ ᄇᆞ릴씨라. 榮養은 榮華ㅅ 供養이라. 痛은 셜ᄒᆞᆯ씨라.言은 맑겨체 ᄡᅳᄂᆞ니라. 疚ᄂᆞᆫ 슬허ᄒᆞᄂᆞᆫ 病이라. ᄆᆡᆼ(망)은 업슬씨오 攸ᄂᆞᆫ 所ㅣ字 ᄒᆞᆫ가지오 措ᄂᆞᆫ 둘씨라.(월석 서: 9-10)

☞ 녜 丙寅年에 이셔 韶憲王后ㅣ 榮養ᄋᆞᆯ ᄉᆞᆯ리 ᄇᆞ려시ᄂᆞᆯ 셜버 슬ᄊᆞ보매 이셔 ᄒᆞᅀᆞᆼ 바ᄅᆞᆯ 아디 몯ᄒᆞ다니.(월석 서: 10)

◉ 世宗이 謂字ᄒᆞ샤ᄃᆡ 薦拔(뺣)이 無如轉經이니 汝宜撰譯釋譜ᄒᆞ라 ᄒᆞ야시ᄂᆞᆯ : 謂ᄂᆞᆫ 니ᄅᆞᆯ씨라. 薦은 올일씨오 拔은 ᄲᅡ힐씨니 追薦이라. 汝ᄂᆞᆫ 네라. 宜ᄂᆞᆫ 맛당ᄒᆞᆯ씨라. 撰은 ᄆᆡᆼᄀᆞᆯ씨라.(월석 서: 10)

☞ 世宗이 날ᄃᆞ려 니ᄅᆞ샤ᄃᆡ 追薦이 轉經 ᄀᆞᆮᄒᆞ니 업스니 네 釋譜ᄅᆞᆯ ᄆᆡᆼᄀᆞ라 飜譯호미 맛당ᄒᆞ니라 ᄒᆞ야시ᄂᆞᆯ (월석 서 : 11)

◉ 予受
慈命ᄒᆞᄉᆞ바 益用覃思ᄒᆞ야 得見祐宣二律師ㅣ 各有編譜호ᄃᆡ 而詳略이 不同커늘 : 命은 시기논 마리라. 益은 더을씨라. 覃은 너블씨오 思ᄂᆞᆫ ᄉᆞ랑ᄒᆞᆯ씨라. 見은 볼씨라. 祐는 南齊律師 僧祐ㅣ오 宣은 唐律師 道宣이라. 編은 글월 ᄆᆡᆼᄀᆞᆯ씨라. 略은 져글씨라. 南齊와 唐과ᄂᆞᆫ 나랏 일후미라.(월석 서: 11)

☞ 내 慈命을 받ᄌᆞ바 더욱 ᄉᆞ랑호ᄆᆞᆯ 너비ᄒᆞ야 僧祐道宣 두 律師ㅣ 各各 譜 ᄆᆡᆼᄀᆞ로니 잇거늘 시러

보ᄃᆡ 詳略이 ᄒᆞᆫ가지 아니어늘 (월석 서 : 12)

◉ 爰合兩書ᄒᆞ야 撰成釋譜詳節ᄒᆞ고 就譯以正音ᄒᆞ야 俾人人이 易曉케 ᄒᆞ야 : 兩은 둘히라. 俾ᄂᆞᆫ 使ᄒᆞᆼ字 ᄒᆞᆫ가지라.(월석 서: 12)

☞ 두 글워ᄅᆞᆯ 어울워 釋譜詳節을 ᄆᆡᇰᄀᆞ라 일우고 正音으로 飜譯ᄒᆞ야 사ᄅᆞᆷ마다 수ᄇᆡ 알에ᄒᆞ야 (월석 서 :12)

◉ 乃進ᄒᆞᅀᆞ보니
賜覽ᄒᆞ시고 뎝(車+取)製讚頌ᄒᆞ샤 名曰 月印千江이라 ᄒᆞ시니 : 乃ᄂᆞᆫ ᄉᆞᄒᆞ논 겨치라 進은 올일씨라. 賜ᄂᆞᆫ 줄씨오 覽은 볼씨라. 뎝은 곧ᄒᆞ논 마리라 頌은 놀애라.(월석 서: 12-13)

☞ 進上ᄒᆞᅀᆞ보니 보ᄆᆞᆯ 주ᅀᆞ오시고 곧 讚頌ᄋᆞᆯ 지ᄉᆞ샤 일후믈 月印千江이라 ᄒᆞ시니.(월석 서: 13)

◉ 其在于今ᄒᆞ야 崇奉ᄋᆞᆯ 曷馳리오. : 于ᄂᆞᆫ 於ᄒᆞᆼ字 ᄒᆞᆫ가지오 今은 이제라. 崇은 尊ᄒᆞᆯ씨오 奉은 바ᄃᆞᆯ씨라. 曷은 엇뎨ᄒᆞ논 마리오 馳ᄂᆞᆫ 누길씨라.(월석 서: 13)

☞ 이제 와 이셔 尊奉ᄒᆞᅀᆞ보ᄆᆞᆯ 엇뎨 누기리오.(월석 서: 13)

◉ 頃丁家戹ᄒᆞ야 長嗣ㅣ 夭亡ᄒᆞ니 父母之情은 本乎天性이라 哀戚之感이 寧殊久近이리오. : 丁은 맛날씨라. 家ᄂᆞᆫ 지비라. 長은 ᄆᆞᄃᆡ오 嗣ᄂᆞᆫ 니슬씨라. 夭ᄂᆞᆫ 즐어딜씨라 父ᄂᆞᆫ 아비오 母ᄂᆞᆫ 어미라. 本은 미티라 哀戚은 슬흘씨라. 感은 ᄆᆞᅀᆞᆷ 뮈울씨라. 寧은 엇뎨ᄒᆞ논 마리라. 殊는 다ᄅᆞᆯ씨라. 久는 오랄씨오 近은 갓가ᄇᆞᆯ씨라.(월석 서: 14)

☞ 近間애 家戹ᄋᆞᆯ 맛나 ᄆᆞᆫ 아ᄃᆞ리 줄어 업스니 父母 ᄠᅳ든 天性에 根源혼디라. 슬픈 ᄆᆞᅀᆞᆷ 뮈유미 엇뎨 오라며 갓가보매 다ᄅᆞ리오.(월석 서: 14)

◉ 予惟欲啓三途之若ᄒᆞ며 要求出離之道ᄂᆡ댄 捨此ᄒᆞ고 何依리오. : 惟ᄂᆞᆫ ᄉᆞ랑ᄒᆞᆯ 씨라. 三途ᄂᆞᆫ 세 길히니 地獄 餓鬼 畜生이라. 要ᄂᆞᆫ ᄒᆞ고져 ᄒᆞᆯ씨라. 離ᄂᆞᆫ 여흴씨라. 捨ᄂᆞᆫ ᄇᆞ릴씨라. 何ᄂᆞᆫ 엇뎨라 ᄒᆞ논 마리라.(월석 서: 14-15)

☞ 내 ᄉᆞ랑호ᄃᆡ 三途ㅅ 受苦애 열오져 ᄒᆞ며 나 여희욣 道ᄅᆞᆯ 求코져 홇딘댄 이 ᄇᆞ리고 어듸 브트리오.(월석 서: 15)

◉ 轉成了義호며 雖則旣多ᄒᆞ니 : 了義ᄂᆞᆫ 決斷ᄒᆞ야 ᄉᆞᄆᆞᆫ ᄠᅳ디니 大乘敎ᄅᆞᆯ 니ᄅᆞ니라.(월석 서: 150

☞ 了義ᄅᆞᆯ 轉ᄒᆞ며 일우미 비록 ᄒᆞ마 하나 (월석 서: 15)

◉ 念此 月印釋譜ᄂᆞᆫ 先考所製시니 依然霜露애 慨增悽愴ᄒᆞ노라 : 先은 몬졔오 考ᄂᆞᆫ 아비라. 依然은 이셧다 ᄒᆞ ᄃᆞᆺᄒᆞᆫ 마리라. 霜露ᄂᆞᆫ 이스리라. 慨ᄂᆞᆫ 애와틸씨라. 增은 더을씨라. 悽愴은 슬허ᄒᆞ논 양ᄌᆡ라.(월석 서: 15)

☞ 念호ᄃᆡ 이 月印釋譜ᄂᆞᆫ 先考 지ᄉᆞ샨 거시니 依然ᄒᆞ야 霜露애 애와텨 더욱 슬허ᄒᆞ노라. ; ᄀᆞᆯᄒᆡ 霜露ㅣ 와 草木이 이울어든 슬픈 ᄆᆞᅀᆞ미 나ᄂᆞ니 時節이 ᄀᆞᆯ이든 어버ᅀᅵ를 일흔 ᄃᆞᆺᄒᆞ니라.(월석 서: 16)

◉ 仰思聿追컨댄 必先述事ㅣ니 萬幾縱沾ᄒᆞ나 豈無閑暇ㅣ리오. 廢寢忘食ᄒᆞ야 窮年繼日ᄒᆞ야 : 仰은 울월씨라. 聿은 말ᄊᆞᆷ 始作ᄒᆞᄂᆞᆫ 겨치오 追ᄂᆞᆫ 미조출씨니 先王ㄱ ᄠᅳ들 미조ᄎᆞ샤 孝道ᄒᆞᄆᆞᄇᆞ실씨라. 述은 니슬씨오 事ᄂᆞᆫ 이리니 父母ㅅ 이를 니ᅀᅥ ᄆᆞᄎᆞ실씨라. 幾ᄂᆞᆫ 조가기니 님긊 이리 만ᄒᆞ실ᄊᆡ ᄒᆞ릇 內예 一萬 조가기시다 ᄒᆞᄂᆞ니라. 縱은 비록 ᄒᆞ논 ᄠᅳ디오 沾ᄂᆞᆫ 넙고 클씨라. 豈ᄂᆞᆫ 엇뎨ᄒᆞ논 마리라. 閑暇ᄂᆞᆫ 겨르리라. 廢ᄂᆞᆫ 말씨오 寢은 잘씨라. 忘은 니즐씨오 食은 바비라 窮은 다ᄋᆞᆯ씨라. 繼는 니슬씨라.(월석 서: 16-17)

☞ 울워러 聿追를 ᄉᆞ랑ᄒᆞ건댄 모로매 일 ᄆᆞᄌᆞ 일우ᅀᆞ보ᄆᆞᆯ 몬져 홇디니 萬幾 비록 하나 엇뎨 겨르리 업스리오. 자디 아니ᄒᆞ며 飮食을 니저 히 다ᄋᆞ며 나를 니ᅀᅥ : 날 니오ᄆᆞᆫ 밤새일씨라.(월석 서 : 17)

◉ 上爲
父母仙駕ᄒᆞᅀᆞᆸ고 兼爲亡兒ᄒᆞ야 速乘慧雲ᄒᆞ샤 廻出諸塵ᄒᆞ샤 直了自性ᄒᆞ샤 頓證覺地ᄒᆞ시게 ᄒᆞ야 : 上은 우히라 仙은 仙人이오 駕ᄂᆞᆫ 술위니 仙駕ᄂᆞᆫ 업스시 닐 ᄉᆞᆯᄇᆞ시논 마리라. 兼은 아올씨라. 兒ᄂᆞᆫ 아히라. 速은 ᄲᆞᆯᄅᆞᆯ씨오 乘은 ᄐᆞᆯ씨라. 慧ᄂᆞᆫ 智慧오 雲은 구루미라. 廻은 멀씨라. 直은 바ᄅᆞᆯ씨라. 自ᄂᆞᆫ 제라 頓은 ᄲᆞᆯᄅᆞᆯ씨오 證은 마긔와 알씨라 覺은 알씨오 地ᄂᆞᆫ 짜히니 覺地ᄂᆞᆫ 부텻 地位라.(월석 서: 17-18)

☞ 우흐로 父母 仙駕를 爲ᄒᆞᅀᆞᆸ고 亡兒를 조쳐 爲ᄒᆞ야 ᄲᆞᆯ리 智慧ㅅ 구루믈 ᄐᆞ샤 諸塵에 머리 나샤 바ᄅᆞ 自性을 ᄉᆞᄆᆞᆺ 아ᄅᆞ샤 覺地를 믄득 證ᄒᆞ시게 호리라 ᄒᆞ야 (월석 서: 18)

◉ 乃講劘研精於舊卷ᄒᆞ며 檃括更添於新編ᄒᆞ야 : 講은 의論ᄒᆞᆯ씨오 劘ᄂᆞᆫ ᄀᆞ다ᄃᆞᆯ씨라. 研은 다ᄃᆞᆫ게 알씨라. 아못것도 至極ᄒᆞᆫ 거시 精이라 舊ᄂᆞᆫ 녜오 卷은 글월 ᄆᆞ로니라. 檃은 구분 것 고틸씨오 括은 方ᄒᆞᆫ 것 고틸씨라. 更은 다시ᄒᆞᆯ 씨오 添은 더을씨라.(월석 서; 18-19)

☞ 녯 글워레 講論ᄒᆞ야 ᄀᆞ다ᄃᆞ마 다ᄃᆞᆫ게 至極케 ᄒᆞ며 새 ᄆᆡᇰᄀᆞ논 글워레 고텨 다시 더어 (월석 서 : 19)

◉ 出入十二部之修多羅호ᄃᆡ 曾靡遺力ᄒᆞ며 增減一兩句之去取호ᄃᆡ 期致盡心ᄒᆞ야 : 入은 들씨라 曾은 곧 ᄒᆞ논 ᄠᅳ디라. 靡ᄂᆞᆫ 업슬씨오 遺ᄂᆞᆫ 기틀씨라. 減은 덜씨라. 去ᄂᆞᆫ 덜씨오 取ᄂᆞᆫ 가질씨라. 期ᄂᆞᆫ 긔지오 致ᄂᆞᆫ 니를에 ᄒᆞᆯ씨라.(월석 서: 19)

☞ 十二部 修多羅애 出入호ᄃᆡ 곧 기튼 히미 업스며 ᄒᆞᆫ두 句를 더으며 더러 ᄇᆞ리며 ᄲᅮᄃᆡ ᄆᆞᅀᆞᆷᄃᆞ보ᄆᆞᆯ 닐윓ᄀᆞ장 긔지ᄒᆞ야.(월석 서: 19-20)

◉ 有所疑處ㅣ어든 必資博問ᄒᆞ야 : 疑ᄂᆞᆫ 疑心이오 處는 고디라. 資ᄂᆞᆫ 브틀씨라. 博은 너블씨오 問은 무를씨라.(월석 서: 20)

☞ 疑心ᄃᆞᄫᆡᆫ 고디 잇거든 모로매 너비 무루ᄆᆞᆯ 브터 : 묻더신 사ᄅᆞᄆᆞᆫ 慧覺尊者 信眉와 判禪宗事

守眉와 判敎宗事 雪竣과 衍慶住持 弘濬과 前槍奄住持 曉雲과 前大慈住持 智海와 前逍遙住持 海超와 大禪師 斯智와 學悅와 學祖와 嘉靖大夫 同知中樞院事 金守溫괘라.(월석 서: 20)

◉ 庶幾搜剔玄根ᄒᆞ야 敷究一乘之妙旨ᄒᆞ며 磨礱理窟ᄒᆞ야 疏達萬法之深原ᄒᆞ노니 : 搜ᄂᆞᆫ 求ᄒᆞᆯ씨오 剔은 ᄇᆞ릴씨라. 玄은 머러 그지업슬씨오 根은 불휘라. 敷ᄂᆞᆫ 펼씨오 究ᄂᆞᆫ ᄀᆞ장 ᄒᆞᆯ씨라. 旨ᄂᆞᆫ ᄠᅳ디라. 磨礱은 돌ᄀᆞ다ᄃᆞᆯ 씨라. 窟은 굼기라. 疏達은 ᄉᆞᄆᆞᄎᆞᆯ씨라. 深은 기픈 根源이라.(월석 서: 20-21)

☞ 먼 불휘ᄅᆞᆯ 求ᄒᆞ야 다ᄃᆞ마 一乘이 微妙ᄒᆞᆫ ᄠᅳ들 펴 ᄀᆞ장 ᄒᆞ며 道理ㅅ 굼글 ᄀᆞ다ᄃᆞ마 萬法의 기픈 根源을 ᄉᆞᄆᆞᆺ게코져 ᄇᆞ라노니.(월석 서: 21)

◉ 盖文非爲經이며 經非爲
佛詮道者ㅣ 是經이오 體道者ㅣ 是佛이시나 : 盖ᄂᆞᆫ 말ᄉᆞᆷ 내ᄂᆞᆫ 그티라. 文은 글워리라. 非ᄂᆞᆫ 아니라 詮은 ᄀᆞᄎᆞ 니를씨라. 體ᄂᆞᆫ 모미라.(월석 서: 21)

☞ 글워리 經이 아니며 經이 부톄 아니라 道理 닐온 거시 이 經이오 道理로 몸 사ᄆᆞ시니 이 부톄시니 (월석 서: 22)

◉ 讀是典者ᄂᆞᆫ 所貴廻光以自照ㅣ오 切忌執指而留筌이니라. ; 讀은 닐글씨오 典은 經이라 廻ᄂᆞᆫ 두르혤씨라. 照ᄂᆞᆫ 비췰씨라. 切은 時急ᄒᆞᆯ씨니 ᄀᆞ장 ᄒᆞ논 ᄠᅳ디라 忌ᄂᆞᆫ 저플씨라 執은 자ᄇᆞᆯ씨오 指ᄂᆞᆫ 손가라기오 留ᄂᆞᆫ 머믈씨오 筌은 고기 잡ᄂᆞᆫ대로 ᄆᆡᇰᄀᆞ론 거시라.(월석 서: 22)

☞ 이 經 닐긇 사ᄅᆞᄆᆞᆫ 光明을 두르혀 제 비취요미 貴ᄒᆞ고 손가락 자ᄇᆞ며 筌 두미 ᄀᆞ장 슬ᄒᆞ니라. : 손가락 자보ᄆᆞᆫ ᄃᆞᆯ ᄀᆞᄅᆞ치ᄂᆞᆫ 손가라ᄀᆞᆯ 보고 ᄃᆞᄅᆞᆯ 아니 볼씨오 그릇 두ᄆᆞᆫ 고기ᄅᆞᆯ 잡고 고기잡ᄂᆞᆫ 그르슬 ᄇᆞ리디 아니ᄒᆞᆯ씨니 니 經文에 붇들인 病이라.(월석 서: 22-23)

◉ 嗚呼ㅣ라. 梵軸이 崇積이어든 觀者ㅣ 猶難於讀誦커니와 方言이 騰布ᄒᆞ면 聞者ㅣ 悉得以景仰ᄒᆞ리니 : 嗚呼ᄂᆞᆫ 한숨 디ᄐᆞᆺᄒᆞᆫ 겨치라 軸은 글월 ᄆᆞ로니라. 崇은 노ᄑᆞᆯ씨오 積은 싸ᄒᆞᆯ씨라. 觀은 볼씨오 猶는 오히려 ᄒᆞ논 마리라. 難은 어려ᄇᆞᆯ씨라. 誦은 외올씨라 方言은 우리 東方ㅅ 마리라. 騰은 옮길씨오 布ᄂᆞᆫ 펼씨라. 景은 클씨오 仰은 울월씨라.(월석 서; 23)

☞ 西天ㄷ 字앳 經이 노피 사햇거든 ᄇᆞᆷ 사ᄅᆞ미 오히려 讀誦ᄋᆞᆯ 어려ᄇᆡ 너기거니와 우리나랏 말로 옮겨 써 펴면 드틇 사ᄅᆞ미 다 시러 키 울월리니 (월석 서: 23)

◉ 肆與宗宰勳戚百官四衆과 結願軫於不朽ᄒᆞ며 植德本然於無窮ᄒᆞ야 : 肆ᄂᆞᆫ 故ㄱ字 ᄒᆞᆫ가지라. 宗은 宗親이오 宰ᄂᆞᆫ 宰相이오 勳은 功臣이오 戚안 아ᅀᆞ미오 百官은 한 祖士ㅣ오 四衆은 比丘와 比丘尼와 優婆塞와 優婆夷왜라. 結은 밀씨오 軫은 술위 우흿 앏뒤헷 빗근 남기니 짐 거두ᄂᆞᆫ 거시라. 또 朽ᄂᆞᆫ 서글씨라. 植은 시믈씨라.(월석 서: 24)

☞ 그럴씨 宗親과 宰相과 公信과 아ᄉᆞᆷ과 百官 四衆과 發願ㅅ 술위ᄅᆞᆯ 석디 아니호매 ᄆᆡ며 德本을 그지업소매 심거.(월석 서: 24)

◉ 冀神安民樂ᄒᆞ며 境靜祚固ᄒᆞ며 時泰而歲有ᄒᆞ며 福臻而災消ᄒᆞ노니 : 冀ᄂᆞᆫ 欲字 ᄒᆞᆫ가지라. 安은

便安ᄒᆞᆯ씨라. 樂은 즐길씨라. 境은 나랏 ᄀᆞᄉᆡ오 靜은 괴외ᄒᆞ야 일 업슬씨라. 祚ᄂᆞᆫ 福이오 固ᄂᆞᆫ 구들씨라. 時ᄂᆞᆫ 時節이오 泰ᄂᆞᆫ 便安ᄒᆞᆯ씨라. 歲ᄂᆞᆫ ᄒᆡ니 歲有ᄂᆞᆫ 녀름ᄃᆞ욀씨라. 臻은 니를씨라. 災ᄂᆞᆫ 厄이오 消ᄂᆞᆫ 스러딜씨라.(월석 서: 24-25)

☞ 神靈이 便安ᄒᆞ시고 百姓이 즐기며 나랏 ᄀᆞᄉᆡ 괴외ᄒᆞ고 福이 구드며 時節이 便安ᄒᆞ고 녀름이 ᄃᆞ외며 福이 오고 厄이 스러디과뎌 ᄒᆞ노니.(월석 서: 25)

◉ 以向所修 功德으로 廻向實際ᄒᆞ야 願共一切有情과 速至菩提彼岸ᄒᆞ노라.: 向은 아니오란 요ᄉᆞᄉᆡ라. 實際ᄂᆞᆫ 眞實ㅅ ᄀᆞᄉᆡ라. 共은 ᄒᆞᆫ가지라. 有情은 ᄠᅳᆮ 이실씨니 衆生ᄋᆞᆯ 니ᄅᆞ니라. 至ᄂᆞᆫ 니를씨오 彼ᄂᆞᆫ 뎨오 岸은 ᄀᆞᄉᆡ라.(월석 서: 25-26)

☞ 우희 닐온 요ᄉᆞᄉᆡ에 ᄒᆞ욘 功德으로 實際예 도ᄅᆞ혀 向ᄒᆞ야 一切有情과 菩提彼岸에 ᄲᅩᆯ리 가고져 願ᄒᆞ노라.(월석 서: 26)

<天順 三年 己卯 七月 日 序>

* 월인석보 서 끝

<月印釋譜 卷之一> 月印千江之曲第一

☞ 부톄 百億 世界예 化身ᄒᆞ야 敎化ᄒᆞ샤미 ᄃᆞ리 즈믄 ᄀᆞᄅᆞ매 비취요미 ᄀᆞᆮᄒᆞ니라. 第ᄂᆞᆫ 次第라. 釋譜詳節 第一. (월석 1: 1)

◉ 巍巍 釋迦佛 無量無邊 功德을 劫劫에 어느 다 ᄉᆞᆯᄫᅳ리.: 巍巍ᄂᆞᆫ 놉고 클씨라. 邊은 ᄀᆞᄉᆡ라.(월석 1:1)

◉ 世尊ㅅ 일 ᄉᆞᆯ보리니 萬里外ㅅ 일이시나 눈에 보논가 너기ᄉᆞᄫᆞ쇼셔.: 萬里外ᄂᆞᆫ 萬里 밧기라.(월석 1: 1)

◉ 世尊ㅅ 말 ᄉᆞᆯ보리니 千載上ㅅ 말이시나 귀예 듣논가 녀기ᄉᆞᄫᆞ쇼셔. : 千載上은 즈믄 힛 우히라.(월석 1: 1-2)

◉ 阿僧祇 前世劫에 님금 位ㄹ ᄇᆞ리샤 精舍애 안잿더시니 五百 前世 怨讐ㅣ 나랏 쳔일버ᅀᅡ 精舍

롤 디나아 가니.(월석 1: 2)

◉ 兄님올 모롤씨 발자쵤 바다 남ᄀᆡ 뻬여 性命을 ᄆᆞᄎᆞ시니 子息 업스실씨 몸앳 필 뫼화 그르세 담아 男女를 내ᅀᆞᄫᆞ니.(월석 1:2))

◉ 어엿브신 命終에 甘蔗氏 니ᅀᆞ샤ᄆᆞᆯ 大瞿曇이 일우니이다. 아ᄃᆞᆨᄒᆞᆫ 後世예 釋迦佛 ᄃᆞ외싫 ᄃᆞᆯ 普光佛이 니ᄅᆞ시니이다.(월석 1:3)

◉ 外道人 五百이 善慧ㅅ 德 닙ᅀᆞ바 弟子ㅣ ᄃᆞ외야 銀 돈올 받ᄌᆞᄫᆞ니 賣花 女 俱夷 善慧ㅅ쁟 아ᅀᆞ바 夫妻願으로 고ᄃᆞᆯ 받ᄌᆞᄫᆞ시니.(월석 1:3)

◉ 다ᄉᆞᆺ 곶 두고지 空中에 머믈어늘 天龍 八部ㅣ 讚嘆ᄒᆞᅀᆞᄫᆞ니 옷과 마리ᄅᆞᆯ 路中에 펴아시ᄂᆞᆯ 普光佛이 ᄯᅩ 授記ᄒᆞ시니. : 路中은 길 가온ᄃᆡ라. (월석 1: 4)

◉ 닐굽 고ᄃᆞᆯ 因ᄒᆞ야 信誓 기프실씨 世世예 妻眷이 ᄃᆞ외시니「誓ᄂᆞᆫ 盟誓이라.」다ᄉᆞᆺ 쑴을 因ᄒᆞ야 授記 ᄇᆞᆯᄀᆞ실씨 今日에 世尊이 ᄃᆞ외시니.(월석 1:4)

☞ 녯 阿僧祇劫 時節에「阿僧祇ᄂᆞᆫ 그지 업슨 數ㅣ라 ᄒᆞ논 마리라. 劫은 時節이라 ᄒᆞ논 ᄠᅳ디라」ᄒᆞᆫ 菩薩이 王 ᄃᆞ외야 겨샤.「菩薩은 菩提薩陁ㅣ라 혼 마ᄅᆞᆯ 조려 니ᄅᆞ니 菩提ᄂᆞᆫ 부텻 道理오 薩陁ᄂᆞᆫ 衆生올 일울씨니 부텻 道理로 衆生 濟渡ᄒᆞ시ᄂᆞᆫ 사ᄅᆞᄆᆞᆯ 菩薩이시다 ᄒᆞᄂᆞ니라.」나라ᄒᆞᆯ 아ᄆᆞ 맛디시고 道理 ᄇᆡ호라 나아가샤 瞿曇婆羅門을 맛나샤「瞿曇은 姓이라 婆羅門은 조ᄒᆞᆫ 힝뎌기라 ᄒᆞ논 마리니 뫼해 드러 일 업시 이셔 힝뎌기 조ᄒᆞᆫ 사ᄅᆞ미라」ᄌᆞ갸 오ᅀᆞ란 밧고 瞿曇ᄋᆡ 오ᄉᆞᆯ 니브샤 深山애 드러 果實와 믈와 좌시고「深山은 기픈 뫼히라」坐禪ᄒᆞ시다가「坐禪은 안자 이셔 기픈 道理 ᅀᆞ랑ᄒᆞᆯ씨라」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ᄉᆞᆸ더니 小瞿曇이라 ᄒᆞ더라.「小ᄂᆞᆫ 져글씨라」(월석 서: 5-6) *조리다(졸이다:줄이다)

☞ 蔗園에「城은 자시라 甘蔗ᄂᆞᆫ 프리니 시믄 두머힛 자히 나ᄃᆡ 대ᄀᆞᆮ고 기리 열자 남ᄌᆞᆨᄒᆞ니 그 汁으로 砂糖올 밍ᄀᆞᄂᆞ니라. 園은 東山이라.」ᄒᆞ오마 안자 잇더시니 도ᄌᆞᆨ 五百이「五ᄂᆞᆫ 다ᅀᆞ시오 百은 오니라」그 윗 거슬 일버머 精舍ㅅ 겨ᄐᆞ로 디나가니 그 도ᄌᆞ기 菩薩ㅅ 前世ㅅ 怨讐ㅣ러라.「前世生은 아랫 뉘옛 生이라」(월석 1; 6)

☞ 이틄 나래 나라해 이셔 도ᄌᆞ기 자최 바다 가아 그 菩薩올 자바 남ᄀᆡ 모ᄆᆞᆯ 뻬ᅀᆞ바 뒷더니「菩薩이 前生애 지손 罪로 이리 受苦ᄒᆞ시니라」大瞿曇이 天眼ᄋᆞ로 보고「菩薩올 小瞿曇이시다 ᄒᆞᆯ씨 婆羅門을 大瞿曇이라 ᄒᆞ니 大ᄂᆞᆫ 클씨라. 天眼은 하ᄂᆞᆳ 누니라.」虛空애 ᄂᆞ라와 묻ᄌᆞ보ᄃᆡ 그디 子息 업더니 므슷 罪오.(월석 1: 6-7)

☞ 菩薩이 對答ᄒᆞ샤ᄃᆡ ᄒᆞ마 주글 내어니 子孫올 議論ᄒᆞ리여.「子ᄂᆞᆫ 아ᄃᆞ리오 孫은 孫子ㅣ니 子孫은 아ᄃᆞ리며 孫子ㅣ며 後ㅅ 孫子ᄅᆞᆯ 無數히 ᄂᆞ리 닐온 마리라」(월석 1:7)

☞ 그 王이 사ᄅᆞᆷ 브려 ᄲᅩ아 주기ᅀᆞ바니라. 大瞿曇이 슬허 ᄲᅬ리여 棺애 녀ᄉᆞᆸ고 피무든 ᄒᆞᆯᄀᆞᆯ 파 가져 精舍애 도가와 왼녁 피닫담고 올ᄒᆞᆫ녁 피닫다마 두고 닐오ᄃᆡ 이 道士ㅣ 精誠이 至極ᄒᆞ단디면「道士ᄂᆞᆫ 道理 ᄇᆡ호ᄂᆞᆫ 사ᄅᆞ미니 菩薩올 ᄉᆞᆯᄫᆞ니라」하ᄂᆞᆯ히 당다이 이 피ᄅᆞᆯ 사ᄅᆞᆷ ᄃᆞ외에 ᄒᆞ시리라.

(월석 1: 7-8)

☞ 열둘 마내 왼녁 피ᄂᆞᆫ 男子ㅣ ᄃᆞ외오「男子ᄂᆞᆫ 남지니라」올ᄒᆞᆫ녁 피ᄂᆞᆫ 女子ㅣ ᄃᆞ외어늘「女子ᄂᆞᆫ 겨지비라」姓ᄋᆞᆯ 瞿曇氏라 ᄒᆞ더니「氏ᄂᆞᆫ 姓ᄀᆞᄐᆞᆫ 마리라」일로브터 子孫이 니스시니 瞿曇氏 다시 니러나시니라.「 小瞿曇이 甘蔗園에 사ᄅᆞ실ᄊᆡ 甘蔗氏라도 ᄒᆞ더니라」(월석 1: 8) *마내(만+애)

☞ 普光佛이「普光은 너븐 光明이라 이 부톄 나싫 저긔 ᄆᆞᆺᄀᆞ새 光이 燈ᄀᆞᄐᆞ실ᄊᆡ 燃燈佛이시다도 ᄒᆞᄂᆞ니 燃은 블혈씨라. ᄯᅩ 錠光佛이시다도 ᄒᆞᄂᆞ니 錠은 발잇ᄂᆞᆫ 燈이라. 佛은 알씨니, 나 알오 ᄂᆞᆷ 조쳐 알욀씨니 부텨를 佛이시다 ᄒᆞᄂᆞ니라.」世界예 나거시ᄂᆞᆯ「하ᄂᆞᆯ히며 사ᄅᆞᆷ 사ᄂᆞᆫ ᄯᅡ홀 다 뫼호아 世界라 ᄒᆞᄂᆞ니라」그 ᄢᅴ 善慧라 ᄒᆞᆫᆞᆫ 仙人이「仙人은 제 몸 구텨 오래 사ᄂᆞᆫ 사ᄅᆞ미니 뫼해 노니ᄂᆞ니라」五百 外道ᄋᆡ 그르 아ᄂᆞᆫ 이ᄅᆞᆯ「外道ᄂᆞᆫ 밧 道理니 부텻 道理예 몯 ᄑᆞᆫ 거시라」ᄀᆞᄅᆞ쳐 고텨 시ᄂᆞᆯ 五百 사ᄅᆞ미 弟子ㅣ ᄃᆞ외아지이다 ᄒᆞ야 銀 돈 ᄒᆞᆫ낟곰 받ᄌᆞᄫᆞ니라.「 法 ᄀᆞᄅᆞ치ᄂᆞ닌 스승이오 ᄇᆡ호ᄂᆞ닌 弟子ㅣ라」(월석 1; 8-9)

☞ 그저긧 燈照王이 普光佛을 請ᄒᆞᄉᆞ바 供養호리라 ᄒᆞ야 나라해 出令호ᄃᆡ 됴ᄒᆞᆫ 고ᄃᆞ란 ᄑᆞ디 말오 다 王ᄭᅴ 가져오라.(월석 1:9)

☞ 善慧 드르시고 ᄎᆞ기 너겨 곳 잇ᄂᆞᆫ ᄯᅡ홀 ᄀᆞᆫ가 가시다가 俱夷ᄅᆞᆯ 맛나시니「俱夷ᄂᆞᆫ ᄇᆞᆯᄀᆞᆫ 녀펴니라 ᄒᆞ논 ᄠᅳ디니 나싫 저긔 히디여 가ᄃᆡ 그 지븐 光明이 비췰ᄊᆡ 俱夷라 ᄒᆞ니라」곳 닐굽 줄기ᄅᆞᆯ 가져 겨샤ᄃᆡ 王ㄱ 出令을 저ᄊᆞ바 甁ㄱ 소배 ᄀᆞ초아 뒷더시니 善慧 精誠이 至極ᄒᆞ실ᄊᆡ 고지 소사 나거늘 조차 블러 사아지라 ᄒᆞ신대 俱夷 니ᄅᆞ샤ᄃᆡ 大闕에 보내ᄉᆞ바「大闕은 큰 지비니 님금 겨신 지비라」부텻긔 받ᄌᆞᄫᆞᆷ 고지라 몯ᄒᆞ리라.(월석 1: 9-10)

☞ 善慧 니ᄅᆞ샤ᄃᆡ 五百銀 도ᄂᆞ로 다ᄉᆞᆺ 줄기ᄅᆞᆯ 사아지라.(월석 1: 10)

☞ 俱夷 묻ᄌᆞᄫᆞ샤ᄃᆡ 므스게 ᄡᅳ시리.(월석 1: 10)

☞ 善慧 對答ᄒᆞ샤ᄃᆡ 부텻긔 받ᄌᆞᄇᆞ리라.(월석 1: 10)

☞ 俱夷 ᄯᅩ 묻ᄌᆞᄫᆞ샤ᄃᆡ 부텻긔 받ᄌᆞ바 므슴호려 ᄒᆞ시ᄂᆞ니.(월석 1: 10)

☞ 善慧 對答ᄒᆞ샤ᄃᆡ 一切 種種 智慧를 일워 衆生ᄋᆞᆯ 濟渡코져 ᄒᆞ노라.「一切ᄂᆞᆫ 다ᄒᆞᄃᆞᆺ ᄒᆞᆫ 마리오 種種은 여러 가지라 ᄒᆞ논 ᄠᅳ디라. 衆生은 一切 世間앳 사ᄅᆞ미며 하ᄂᆞᆯ히며 긔ᄂᆞᆫ 거시며 ᄂᆞᄂᆞᆫ 거시며 므렛 거시며 무틧 거시며 숨ᄐᆞᆫ 거슬 다 衆生이라 ᄒᆞᄂᆞ니라. 濟渡ᄂᆞᆫ 믈 걷낼씨니 世間앳 煩惱 만호미 바ᄅᆞᆳ믈 ᄀᆞᄐᆞ니 부톄 法 ᄀᆞᄅᆞ치샤 煩惱 바ᄅᆞ래 걷내야 내실ᄊᆞᆯ 濟渡ㅣ라 ᄒᆞᄂᆞ니라.」(월석 1: 11)

☞ 俱夷 너기샤ᄃᆡ 이 男子ㅣ 精誠이 至極ᄒᆞᆯᄊᆡ 보ᄇᆡ롤 아니 앗기놋다 ᄒᆞ야 니ᄅᆞ샤ᄃᆡ 내 이 고ᄀᆞᆯ 나오리니 願ᄒᆞᆫᄃᆞᆫ 내 生生애 그딋 가시 ᄃᆞ외아지라.(월석 1: 11)

☞ 善慧 對答ᄒᆞ샤ᄃᆡ 내 조ᄒᆞᆫ 힝뎌글 닷가 일업슨 道理ᄅᆞᆯ 求ᄒᆞ노니 죽사릿 因緣은 둗디 몯호려다.「因緣은 젼ᄎᆡ니 前生앳 이릐 젼ᄎᆞᄅᆞᆯ 因緣이라 ᄒᆞ고 그 이ᄅᆞᆯ 因ᄒᆞ야 後生애 ᄃᆞ외요ᄆᆞᆯ 果報ㅣ라 ᄒᆞᄂᆞ니 果ᄂᆞᆫ 여르미오 報ᄂᆞᆫ 가포씨라. 됴ᄒᆞᆫ ᄇᆡ 심거든 됴ᄒᆞᆫ 여름 여루미 前生앳 이릐 因緣으로 後

生애 됴ᄒᆞᆫ 몸 ᄃᆞ외어나 구즌 몸 ᄃᆞ외어나 호미 ᄀᆞᄐᆞᆯ씨 果ㅣ라 ᄒᆞ고 後生애 ᄃᆞ외요미 前生 因緣을 가포밀씨 報ㅣ라 ᄒᆞᄂᆞ니라. 夫妻ᄒᆞ야 사로ᄆᆞᆫ 힝뎌기 조티 몯ᄒᆞ야 輪廻ᄅᆞᆯ 벗디 몯ᄒᆞᄂᆞᆫ 根源일씨 죽사릿 因緣이라 ᄒᆞ니라. 夫는 샤오이오 妻는 가시라. 輪廻ᄂᆞᆫ 술윗 ᄠᅵ 횟돌씨니 부텨는 煩惱ᄅᆞᆯ 뻐러 ᄇᆞ리실씨 죽사릿 受苦ᄅᆞᆯ 아니 ᄒᆞ거시니와 샹녯 사ᄅᆞᄆᆞᆫ 煩惱ᄅᆞᆯ 몸 뻐러 ᄇᆞ릴씨 이 生애셔 厚生 因緣을 지ᅀᅥ 사ᄅᆞ미 ᄃᆞ외락 벌에 즁싱이 ᄃᆞ외락 ᄒᆞ야 長常 주그락 살락 ᄒᆞ야 受苦호ᄆᆞᆯ 輪廻라 ᄒᆞᄂᆞ니라.」(월석 1: 11-12) *샤옹(사나이) *-락-락/

☞ 俱夷 니ᄅᆞ샤ᄃᆡ 내 願을 아니 從ᄒᆞ면 고ᄃᆞᆯ 몯 어드리라.(월석 1: 12)

☞ 善慧 니ᄅᆞ샤ᄃᆡ 그러면 네 願을 從호리니 나ᄂᆞᆫ 布施ᄅᆞᆯ ᄀᆞᆯ겨 「布施ᄂᆞᆫ 쳔랴ᄋᆞᆯ 펴아 내야 ᄂᆞᆷ 줄씨라」 사ᄅᆞᄆᆡ ᄠᅳ들 거스디 아니ᄒᆞ노니 아뫼어나 와 내 머릿 바기며 ᄂᆞᆭᄌᆞᄉᆡ며 骨髓며 가시며 子息이며 도라 ᄒᆞ야도 「骨髓는 뼛 소개 잇ᄂᆞᆫ 기르미라」 네 거튫 ᄇᆞᆫᄒᆞ야 내 布施ᄒᆞ논 ᄆᆞᅀᆞᄆᆞᆯ 허디 말라.(월석 1: 12-13) *도라ᄒᆞ다 /아뫼+어나

☞ 俱夷 니ᄅᆞ샤ᄃᆡ 그딋 말다히 호리니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ᄫᆞᆯ씨 두 줄기ᄅᆞᆯ 조쳐 맛디노니 부텻긔 받ᄌᆞ바 生生애 내 願을 일티 아니케 ᄒᆞ고라.(월석 1: 13) *-고라(명령형)

☞ 그 ᄠᅴ 燈照王이 臣下와 百姓과 領코 「領은 거느릴씨라」 種種 供養 가져 城의 나아 부텨를 맛ᄌᆞ바 저ᅀᆞᆸ고 일훔난 고ᄃᆞᆯ 비터라.(월석 1: 13) *빋다 (빋+어라:서술--비흐다와의 관련성)

☞ 녀느 사ᄅᆞ미 供養 ᄆᆞ차ᄂᆞᆯ 善慧 다ᄉᆞᆺ 고ᄃᆞᆯ 비흐시니 다 空中에 머므러 곳 臺 ᄃᆞ외어늘 「空中은 虛空ㅅ 가온ᄃᆡ라」 後에 두 줄기ᄅᆞᆯ 비흐니 ᄯᅩ 空中에 머므러 잇거늘 王이며 天龍 八部ㅣ 과ᄒᆞ야 녜 업던 이리로다 ᄒᆞ더니 「 八部는 여듧 주비니 天과 龍과 夜叉와 乾闥婆와 阿修羅와 迦樓羅와 緊那羅와 摩睺羅伽왜니 龍은 고ᄀᆡ 中에 위두ᄒᆞᆫ 거시니 ᄒᆞᆫ 모미 크락져그락 ᄒᆞ야 神奇ᄒᆞᆫ 變化ㅣ 몯내 앓 거시라. 夜叉ᄂᆞᆫ ᄂᆞᆯ나고 모디다 혼 ᄠᅳ디니 虛空애 ᄂᆞ라 ᄃᆞᆫ니ᄂᆞ니라. 乾闥婆ᄂᆞᆫ 香내 맏ᄂᆞ다 혼 ᄠᅳ디니 하ᄂᆞᆳ 풍류ᄒᆞᄂᆞᆫ 神靈이니 하ᄂᆞᆯ해 이셔 풍류호려 ᄒᆞᆶ 저기면 이 神靈이 香내 맏고 올아가ᄂᆞ니라. 阿修羅ᄂᆞᆫ 하ᄂᆞᆯ 아니라 ᄒᆞ논 ᄠᅳ디니 福과 힘과ᄂᆞᆫ 하ᄂᆞᆯ콰 ᄀᆞ토ᄃᆡ 하ᄂᆞᆳ 힝뎌기 업스니 嗔心이 한 젼ᄎᆡ라. 迦樓羅ᄂᆞᆫ 金 ᄂᆞᆯ개라 혼 ᄠᅳ디니 두 ᄂᆞᆯ개 ᄊᆞᅀᅵ 三百 三十六萬里오 모ᄀᆡ 如意珠ㅣ 잇고 龍ᄋᆞᆯ 밥 사마 자바 먹ᄂᆞ니라. 緊那羅ᄂᆞᆫ 疑心 ᄃᆞᄫᆡᆫ 神靈이라 혼 ᄠᅳ디니 사ᄅᆞᆷ ᄀᆞ토ᄃᆡ ᄲᅳ리이실씨 사ᄅᆞ민가 사ᄅᆞᆷ 아닌가 ᄒᆞ야 疑心ᄃᆞᄫᅵ니 ᄂᆞᆯ애 브르ᄂᆞᆫ 神靈이니 부텨 說法ᄒᆞ신 다마다 能히 놀애로 브르ᅀᆞᆸᄂᆞ니라. 摩睺羅伽ᄂᆞᆫ 큰 빗 바다ᄋᆞ로 긔여ᄒᆞ니ᄂᆞ다 혼 ᄠᅳ디니 큰 ᄇᆞ얌 神靈이라. 變은 常例예셔 다ᄅᆞᆯ씨오 化ᄂᆞᆫ ᄃᆞ욀시라. 三은 세히오 十은 열히오 六은 여스시라. 열 百이 千이오 열 千이 萬이라. 여슷자히 步ㅣ오 三百步ㅣ 里라. 珠는 구스리라. 說은 니를씨라.」(월석 1: 14-15) * 비흐다 / 설법ᄒᆞ신 다마다(ᄃᆞ+아/디/?)

☞ 普光佛이 讚歎ᄒᆞ야 니ᄅᆞ샤ᄃᆡ 「讚歎은 기릴씨라」 됴타 네 阿僧祇劫을 디나가 부톄 ᄃᆞ외야 號ᄅᆞᆯ 釋迦牟尼라 ᄒᆞ리라.「 號ᄂᆞᆫ 일훔 사마 브르ᄂᆞᆫ 거시라. 釋迦ᄂᆞᆫ 어딜며 ᄂᆞᆷ 어엿비 너기실씨니 衆生 爲ᄒᆞ야 世間애 나샤ᄆᆞᆯ ᅀᅡᆷ고 牟尼ᄂᆞᆫ 괴외즘즘ᄒᆞᆯ씨니 智慧ㅅ 根源을 ᄉᆞᆯᄫᆞ니 釋迦ᄒᆞ실씨 涅槃애 니겨시고 牟尼ᄒᆞ실씨 生死애 아니 겨시니라. 涅槃은 업다ᄒᆞ논 ᄠᅳ디라」(월석 1: 15-16)

☞ 授記 다ᄒᆞ시고 「授記ᄂᆞᆫ 네 아모 저긔 부텨 ᄃᆞ외리라 미리 니ᄅᆞ실씨라」 부텨 가시논 ᄯᅡ히 ᄀᆞᆯ어늘 善慧 니버 잇더신 鹿皮오ᄉᆞᆯ 바사 ᄯᅡ해 ᄉᆡᆼᄅᆞ시고 「鹿皮ᄂᆞᆫ 사ᄉᆞᄆᆡ 가치라」 마리ᄅᆞᆯ 펴 두퍼시ᄂᆞᆯ 부톄 ᄇᆞᆯ바디니시고 ᄯᅩ 授記ᄒᆞ샤ᄃᆡ 네 後애 부톄 ᄃᆞ외야 五濁惡世예 「濁은 흐릴씨오 惡은 모딜씨

라. 五濁은 劫濁 見濁 煩惱濁 衆生濁 命濁이니 本來 몰군 性애 흐린 ᄆᆞᅀᆞᆷ 니러나미 濁이라. 劫은 時節이니 時節에 모딘 이리 만ᄒᆞ야 흐리워 罪業을 니르바 ᄃᆞᆯ씨라. 見은 볼씨니 빗근 보미라. 煩은 만흘씨오 惱ᄂᆞᆫ 어즈릴씨라. 주그며 살며 ᄒᆞ야 輪廻호미 衆生濁이라. 목수믈 몯 여희유미 命濁이니 命은 목수미라」 天人 濟渡호ᄆᆞᆯ 뻘뷔이니 호미 당다이 나 ᄀᆞᆮᄒᆞ리라. 「天人은 하ᄂᆞᆯ콰 사ᄅᆞᆷ미라」 (월석 1: 16-17) *갉(가죽) / 어즈리다/ 뻘뷔이다/

☞ 그 ᄢᅴ 善慧 부텻긔 가아 出家ᄒᆞ샤 世尊ㅅ긔 ᄉᆞᆯᄫᆞ샤ᄃᆡ 「出은 날씨오 家ᄂᆞᆫ 지비니 집 ᄇᆞ리고 나가 머리 갓ᄀᆞᆯ씨라」 내 어저ᅀᅴ 다ᄉᆞᆺ 가짓 ᄭᅮ믈 ᄭᅮ우니 ᄒᆞ나ᄒᆞᆫ 바ᄅᆞ래 누ᄇᆞ며 둘ᄒᆞᆫ 須彌山ᄋᆞᆯ 볘며「須彌ᄂᆞᆫ ᄀᆞ장 놉다 ᄒᆞ논 ᄠᅳ디라」 세ᄒᆞᆫ 衆生ᄃᆞᆯ히 내 몸 안해 들며 네ᄒᆞᆫ 소내 히ᄅᆞᆯ 자ᄇᆞ며 다ᄉᆞᆫ 소내 ᄃᆞᄅᆞᆯ 자보니, 世尊하 날 爲ᄒᆞ야 니ᄅᆞ쇼셔.(월석 1: 17) ᅀᅴ(ㅅ긔) .-쇼셔(명령)

☞ 부톄 니ᄅᆞ샤ᄃᆡ 바ᄅᆞ래 누ᄇᆞᆫ 이ᄅᆞᆫ 네 죽사릿 바ᄅᆞ래 잇논 야이오, 須彌山 볘윤 이ᄅᆞᆫ 죽사리ᄅᆞᆯ 버서날 ᄂᆞ지오, 衆生이 모매 드로ᄆᆞᆫ 衆生ᄋᆡ 歸依홇 ᄯᅡ히 ᄃᆞ욀 ᄂᆞ지오, 히ᄅᆞᆯ 자보ᄆᆞᆫ 智慧 너비 비췰 ᄂᆞ지오, ᄃᆞᄅᆞᆯ 자본 이ᄅᆞᆫ 묽고 간다ᄇᆞᆫ 道理로 衆生ᄋᆞᆯ 濟渡ᄒᆞ야 더ᄇᆞᆫ 煩惱를 여희의ᄒᆞᆯ ᄂᆞ지니 「더ᄇᆞᆫ 煩惱ᄂᆞᆫ 煩惱ㅣ 블ᄀᆞ티 다라나ᄂᆞᆫ 거실ᄊᆡ 덥다 ᄒᆞᄂᆞ니라」 이 ᄭᅮ믜 因緣은 네 쟝ᄎᆞ 부텨 ᄃᆞ욇 相이로다.(월석 1: 17-18) * 양 / 늦(? 징조) / 묽고 + 간답다(간다ᄇᆞᆫ)

☞ 善慧 듣ᄌᆞᆸ고 깃거ᄒᆞ더시다.(월석 1: 18)

☞ 普光佛 滅度ᄒᆞ거시ᄂᆞᆯ 「滅은 업슬씨오 度ᄂᆞᆫ 걷날씨니 뷔여 ᄒᆞᆫ 것도 업서 世間 밧긔 걷나닐씨니 긔 涅槃이니 涅槃은 괴외ᄒᆞᆯ씨니 ᄆᆞᅀᆞᄆᆞᆯ 몰기샤 ᄒᆞᆫ 것도 업시 뷔샤 사디 아니ᄒᆞ시며 죽디 아니ᄒᆞ샤 便安케 ᄃᆞ외실씨라」 善慧 比丘ㅣ 正ᄒᆞᆫ 法을 護持ᄒᆞ샤 「比丘는 즁이라」 二萬힛 ᄉᆞᅀᅴ예 「二ᄂᆞᆫ 둘히라」 衆生 濟渡호ᄆᆞᆯ 몯 니ᄅᆞ혜에 ᄒᆞ시고 命終ᄒᆞ야 「命終은 목숨 ᄆᆞᄎᆞᆯ씨라」 四天王이 ᄃᆞ외샤 「四天王은 네 天王이니 東方之國 天王 南方增長 天王 西方廣目 天王 北方多聞 天王이니 아래로 첫 하ᄂᆞ리라」 天衆 敎化ᄒᆞ시다가 「天衆은 하ᄂᆞᆯ헷 사ᄅᆞᆷ미라. 敎化ᄂᆞᆫ ᄀᆞᄅᆞ쳐 어딜에 ᄃᆞ외올씨라」 그 하ᄂᆞᆯ 목숨 다 사ᄅᆞ시고 人間애 ᄂᆞ리샤 「人間은 사ᄅᆞᆷ 서리라」 轉輪王이 ᄃᆞ외야 「轉은 그울씨오 輪은 술위ᄲᅵ니 轉輪은 술위를 그우릴씨니 聖王 셔실 나래 술위 ᄂᆞ라오나ᄃᆞᆫ 그 술위ᄅᆞᆯ ᄐᆞ샤 나라혜 다 ᄃᆞᆫ니실ᄊᆡ 轉輪王 이시다 ᄒᆞ며 輪王이시다 ᄒᆞᄂᆞ니라. 聖王은 聖人이신 王이시니 聖은 通達ᄒᆞ야 몰ᄅᆞᆯ 이리 업슬씨라」 四天下ᄅᆞᆯ 다ᄉᆞ리시다가 「四天下ᄂᆞᆫ 東弗婆提 西瞿陁尼 南閻浮提 北鬱單越이라」 (월석 1: 18-19) 몰기샤 -기(사동)

☞ ᄯᅩ 命終ᄒᆞ샤 올아 忉利天에 나샤 「忉利ᄂᆞᆫ 셜혼 세히라 혼 마리니 忉利天內에 셜흔 세 하ᄂᆞ리 잇ᄂᆞ니 아래로 둘찻 하ᄂᆞ리라. 內ᄂᆞᆫ 안히라」 그 목숨 다 사ᄅᆞ시고 ᄯᅩ ᄂᆞ려와 轉輪王이 ᄃᆞ외시며 ᄯᅩ 梵天에 올아 「梵은 조ᄒᆞᆫ 힝뎌기라 혼 ᄠᅳ디니 아래로 닐굽찻 하ᄂᆞ니라」 天帝 ᄃᆞ외야 겨시다가 「天帝ᄂᆞᆫ 하ᄂᆞᆳ 皇帝라」 도로 ᄂᆞ려와 聖王이 ᄃᆞ외샤 各各 셜흔 여슷 디위를 오ᄅᆞᄂᆞ리시니 그 ᄉᆞᅀᅴ예 시혹 仙人이 ᄃᆞ외시며 外道 六師ㅣ ᄃᆞ외시며 「外道ᄋᆡ 스숭이 여슷 가지라」 婆羅門이 ᄃᆞ외시며 小王이 ᄃᆞ외샤 「小王은 혀근 王이니 轉輪王 아닌 王이라」 이러트시 고텨 ᄃᆞ외샤미 몯 니ᄅᆞ혜리러라.(월석 1: 20-21)

◉ 名賢劫이 엷제 後ㅅ 일ᄋᆞᆯ 뵈요리라. 一千 靑蓮이 도다 ᄑᆡ더니 四禪天이 보고 디나건 일로 혜야 一千 世尊이 나싫 ᄃᆞᆯ 아니. (월석 1: 20) * ᄃᆞᆯ(의존명사)=것을

☞ 娑婆世界內예「娑婆ᄂᆞᆫ 受苦ᄅᆞᆯ 겻ᄂᆞ다 ᄒᆞ논 ᄠᅳ디니 하ᄂᆞᆯ히 현마 즐겁고도 福이 다아 衰ᄒᆞ면 受苦ᄅᆞᄫᅵ요미 地獄두고 더으니 부텨옷 죽사릴 여희샤 娑婆世界 밧긔 버서 나시니라」三千大千 나라히니 一千 나라히 小千界오 一千小千界 中千界오「中은 가온ᄃᆡ라」一千 中千界라 ᄒᆞᆫ 나라해 ᄒᆞᆫ 須彌山곰 이쇼ᄃᆡ 그 山이 東녀근 黃金이오「黃은 누를씨라」南녀근 靑琉璃오「靑은 프를씨오 琉璃ᄂᆞᆫ 프른 비쳇 보ᄇᆡ라 혼 ᄠᅳ디니 브레 드러도 녹디 아니ᄒᆞᄂᆞ니라」西ㅅ 녀근 白銀이오「白은 흴씨라」北녀근 黑玻瓈라.「黑은 거믈씨오 玻瓈ᄂᆞᆫ 믈玉이라 혼 마리니 水精이라」(월석 1: 21-22)
*두고(토씨)/ *옷(토씨) *현마 / -곰

☞ 須彌山 밧긔 닐굽 山이 둘어 잇ᄂᆞ니「닐굽 山은 持雙山 持軸山 擔木山 善見山 馬耳山 象鼻山 魚鼓山이라」金銀 琉璃 玻瓈 硨磲 瑪瑙 赤眞珠ㅣ ᄃᆞ외야 잇ᄂᆞ니라.「瑪瑙ᄂᆞᆫ ᄆᆞᆶ 頭腦ㅣ니 비치 ᄒᆡ오 블구미 ᄆᆞᆶ 頭腦ㅣ ᄀᆞᄐᆞ니라. 赤眞珠는 블근 眞珠ㅣ라」(월석 1: 22-23)

☞ 닐굽 山 ᄉᆞᅀᅵᄂᆞᆫ 香水 바다히니「水ᄂᆞᆫ 므리라」優鉢羅花와「優鉢羅花ᄂᆞᆫ 靑蓮花ㅣ니 花ᄂᆞᆫ 고지라」 波頭摩花와「波頭摩花ᄂᆞᆫ 紅蓮花ㅣ니 紅은 블글씨라」拘牟頭花와「拘牟頭花ᄂᆞᆫ 黃蓮花ㅣ라」奔茶利花ㅣ「奔多利花ᄂᆞᆫ 白蓮花ㅣ라」 믈 우희 차 두퍼 잇ᄂᆞ니라.(월석 1: 23)

☞ 닐굽 山 바ᄭᅴ사 鹹水 바다히 잇거든「鹹은 ᄠᆞᆯ씨라」娑竭羅龍王이 위두ᄒᆞ야 잇ᄂᆞ니「娑竭羅ᄂᆞᆫ ᄇᆞᆫ 바다히라 혼 ᄠᅳ디니 사ᄂᆞᆫ ᄯᅡᄒᆞ로 일홈 지ᄒᆞ니라. 龍王은 龍ᄋᆡ 中엣 王이니 대도 ᄒᆞᆫ디 사ᄉᆞᄆᆞᆯ 鹿王이라 ᄒᆞ며 쇼ᄅᆞᆯ 牛王이라 ᄒᆞ며 鸚鵡ᄅᆞᆯ 鸚鵡王이라 ᄒᆞ며 즘게남ᄀᆞᆯ 樹王이라 ᄒᆞᄃᆞᆺᄒᆞ야 아모거긔도 제무레 위두ᄒᆞᆫ 거슬 王이라 ᄒᆞᄂᆞ니라.」녀느 龍이 다 臣下ㅣ라.(월석 1: 23-24) * 위두ᄒᆞ다 (우두머리가 되다)

☞ 그 鹹水 바다해 네 셔미 잇ᄂᆞ니 東녁 셔믄 弗婆提오「弗婆提ᄂᆞᆫ 처섀미라 혼 ᄠᅳ디니 ᄒᆡ 처섬나ᄂᆞᆫ ᄯᅡ히라」南녁 셔믄 閻浮提오「閻浮ᄂᆞᆫ 나못 일후미오 提ᄂᆞᆫ 셔미니 셤 우희 남기 잇고 그 숩 서리예 므리 잇ᄂᆞ니 그 믈 미틔 金 몰애 잇ᄂᆞ니 일후미 閻浮檀金이니 그럴씨 일후믈 閻浮提라 ᄒᆞᄂᆞ니라」西쪄ㄱ 셔믄 瞿陁尼오「瞿陁尼ᄂᆞᆫ 쇼 천량이라 혼 ᄠᅳ디니 그어긔 쇠(쇼ㅣ) 하아 쇼로 천사마 홍졍ᄒᆞᄂᆞ니라」北녁 셔믄 鬱單越이니「鬱單越은 ᄆᆞᆺ 됴ᄒᆞᆫ ᄯᅡ히라 혼 ᄠᅳ디니 네 天下ㅅ 中에 ᄆᆞᆺ 됴ᄒᆞ니라」이 네 셔믈 네 天下ㅣ라 ᄒᆞᄂᆞ니 우리 사ᄂᆞᆫ ᄯᅡ히 南녁 閻浮提 天下ㅣ라.(월석 1: 24) *셤(섬)

☞ 이 네 天下ᄅᆞᆯ 金ㅣ輪王은 다 ᄃᆞᄉᆞ리시고 銀輪王은 세 天下ᄅᆞᆯ 다ᄉᆞ리시고 銅輪王은 두 天下ᄅᆞᆯ 다ᄉᆞ리시고 鐵輪王은 ᄒᆞᆫ 閻浮提ᄅᆞᆯ 다ᄉᆞ리시ᄂᆞ니 이 네 輪王이 ᄒᆞᆫ 밤낫 ᄉᆞᅀᅵ예 ᄌᆞ갸 ᄃᆞᄉᆞ리시논 ᄯᅡᄒᆞᆯ 다 도ᄅᆞ샤 十善ᄋᆞ로 敎化ᄒᆞ시ᄂᆞ니「十善은 열가짓 됴ᄒᆞᆫ 이리니 산것 주기디 아니ᄒᆞ며 도ᄌᆞᆨ 아니ᄒᆞ며 婬欲아니ᄒᆞ며 거즛말 아니ᄒᆞ며 빗난 말 아니ᄒᆞ며 모딘 말 아니ᄒᆞ며 두가짓 말 아니ᄒᆞ며 앗기고 貪티 아니ᄒᆞ며 嗔心 아니ᄒᆞ며 邪曲ᄒᆞᆫ 봄 아니ᄒᆞᆯ씨라. 婬欲은 남진 겨지비 ᄒᆞᆫ디 잘씨오 邪曲은 빗그며 고바 正티 몯ᄒᆞᆯ씨라」金輪王은 하ᄂᆞᆯ해도 가시ᄂᆞ니라.(월석 1: 25)

☞ ...「金輪은 金 술위오 銀輪은 銀 술위오 銅輪은 구리 술위오 鐵輪은 쇠 술위니 네 輪王이 七寶 千子ᄅᆞᆯ 두시ᄂᆞ니 셔실 나래 七寶ㅣ 하ᄂᆞᆯ로셔 ᄂᆞ리오ᄂᆞ니라. 七寶ᄂᆞᆫ 닐굽 가짓 보ᄇᆡ니 金輪寶와 如意珠寶와 玉女寶와 主藏臣寶와 主兵臣寶와 馬寶와 象寶ㅣ라. 金輪寶ᄂᆞᆫ 술위ᄲᅴ 一千 사리니 보ᄇᆡ로 ᄭᅮ며 光明이 ᄒᆡ돌두고 더으니 王ㅅ ᄆᆞᅀᆞ매 아모ᄃᆡ 나가고져 ᄒᆞ시면 그 술위 절로 그우러 아니 한 ᄉᆞᅀᅵ예 天下ᄅᆞᆯ 다 도ᄅᆞ시ᄂᆞ니 그 술위 보ᄉᆞᄫᆞᆫ 나라ᄒᆞᆫ 降服ᄒᆞᅀᆞᆸᄂᆞ니라. 如意珠寶ᄂᆞᆫ ᄃᆞᆯ 업슨

바ᄆᆡ 虛空애 ᄃᆞᆯ면 그 나랏ᄀᆞ자ᄋᆞᆫ 낫ᄀᆞ티 붉ᄂᆞ니라. 玉女寶ᄂᆞᆫ 옥ᄀᆞᄐᆞᆫ 겨지비니 모미 겨스렌 덥고 녀르멘 ᄎᆞ고 이베셔 靑蓮花ㅅ 香내 나며 모매셔 梅檀香내 나며 차바ᄂᆞᆯ 머거도 自然히 스러ᄆᆞᆯ 보기ᄅᆞᆯ 아니ᄒᆞ며 겨지븨 그에 브튼 더러ᄇᆞᆫ 이스리 업스며 마릿 기리 몸과 ᄀᆞᆯᄒᆞ며 킈 젹도크도 아니ᄒᆞ고 ᄉᆞᆯ히 지도여위도 아니ᄒᆞ니라. 旃檀香ᄋᆞᆫ 모매 ᄇᆞᄅᆞ면 브레 들오도 브리 몯 ᄉᆞᆯ며 諸天ᄃᆞᆯ히 阿修羅와 사홇 저긔 갈해 헌 ᄯᅡ홀 旃檀香 ᄇᆞᄅᆞ면 즉자히 암ᄀᆞᄂᆞ니라. (월석 1: 25-26).. *붉다/ 겨슬/ -ᄅᆞᆯ-ᄅᆞᆯ(스러ᄆᆞᆯ 보기ᄅᆞᆯ)/ ᄉᆞᆯ다(사르다)

☞ .. 이 香이 高山이라 홀 뫼해셔 나ᄂᆞ니 그 묏 보오리 쇠(쇼ㅣ) 머리 ᄀᆞᄐᆞᆯᄊᆡ 牛頭旃檀香이라 ᄒᆞᄂᆞ니 牛頭는 쇠머리라...(월석 1:27)

☞.. 主藏臣寶ᄂᆞᆫ 藏 ᄀᆞᄉᆞᆷ 안 臣下ㅣ니 王이 보ᄇᆡᄅᆞᆯ 얻고져 ᄒᆞ거시든 그 臣下ㅣ 소ᄂᆞ로 ᄯᅡ홀 ᄀᆞᄅᆞ치면 ᄯᅡ해셔 七寶ㅣ 나고 뫼ᄒᆞᆯ ᄀᆞᄅᆞ치면 뫼해셔 七寶ㅣ 나고 므를 ᄀᆞᄅᆞ치면 므레셔 七寶ㅣ 나고 ᄃᆞᆯᄒᆞᆯ ᄀᆞᄅᆞ치면 ᄃᆞᆯ해셔 七寶ㅣ 나ᄂᆞ니라. 七寶ᄂᆞᆫ 金銀과 琉璃와 玻瓈와 硨磲와 瑪瑙와 赤眞珠왜라. 主兵臣寶ᄂᆞᆫ 兵馬 ᄀᆞᄉᆞᆷ안 臣下ㅣ니 王이 象兵 馬兵 車兵 步兵 네 가짓 兵馬ᄅᆞᆯ 얻고져 ᄒᆞ샤 一千이여 一萬이여 無數히 얻고져 ᄒᆞ샤도 아니 한 ᄉᆞᄉᆡ예 다 일워 내ᄂᆞ니 象兵은 ᄀᆞᄅᆞ쳐 싸호매 브리ᄂᆞᆫ 고키리오, 馬兵은 ᄆᆞᆯᄐᆞᆫ 兵이오 車兵은 술위ᄐᆞᆫ 兵이오 步兵은 거른 兵이라...(월석 1: 27) *ᄀᆞᄉᆞᆷ안다

☞.. 馬寶ᄂᆞᆫ ᄆᆞ리니 비치 ᄇᆞᆯ가 ᄑᆞ라코 갈기예 구스리 ᄲᅦ옛거든 솔로 빗기면 ᄆᆞᆯᄀᆞᆫ 구스른 ᄠᅥ러디고 즉자히 ᄊᆡ 구스리 나며 우흠 쏘ᄅᆡ 즘게 나마 가며 王이 ᄐᆞ샤 니시면 天下ᄅᆞᆯ ᄒᆞᄅᆞᆺ內예 다 도라오샤ᄃᆡ 그 ᄆᆞ리 ᄀᆞᆺ디 아니ᄒᆞ며 그 ᄆᆞᆯ ᄇᆞᆯᄇᆞᆫ ᄯᅡ흔 몰애 金이 ᄃᆞ외ᄂᆞ니라...(월석 1: 28)

☞.. 象寶ᄂᆞᆫ 고키리니 비치 하ㅣ오 ᄉᆞᆫ리예 구스리 ᄲᅦ오 히미 常例ㅅ 一百象두고 더 세며 여슷 엄 가지고 이미 七寶ㅅ 비치오 王이 ᄐᆞ시면 天下ᄅᆞᆯ ᄒᆞᄅᆞᆺ內예 다 도라오샤ᄃᆡ 그 象이 ᄀᆞᆺ디 아니ᄒᆞ고 바리 젓디 아니ᄒᆞᄂᆞ니라. 千子ᄂᆞᆫ 즈믄 아ᄃᆞ리니 ᄒᆞ나히 어디러 즈믄 사ᄅᆞᄆᆞᆯ 당ᄒᆞ릴ᄊᆡ 千子ㅣ라 ᄒᆞᄂᆞ니라.」(월석 1: 28)

☞ 鐵圍山이 네 天下 밧긔 둘어잇고 그 밧긔 ᄯᅩ 鐵圍山 ᄊᆞᄉᆡ 어드ᄇᆞᆫ ᄯᅡ해 地獄이 버려 잇ᄂᆞ니라.(월석 1: 28)

☞ ..「獄은 罪 지슨 사ᄅᆞᆷ 가도ᄂᆞᆫ ᄯᅡ히니 ᄯᅡ 아랫 獄일ᄊᆡ 地獄이라 ᄒᆞᄂᆞ니라. 굴근 地獄이 여듧비니 活地獄과 黑繩 地獄과 合地獄과 ᄭᅮᆯ(口+斗)喚地獄과 大ᄭᅮᆯ喚 地獄과 熱惱地獄과 大熱惱 地獄과 阿鼻 地獄괘라. ...(월석 1: 28) *가도다(가두다)

☞ ..活은 살씨니 제 손토비 쇠 ᄃᆞ외야 제 모ᄆᆞᆯ ᄡᅥ야 ᄇᆞ려 죽고져 호ᄃᆡ 몯ᄒᆞᄂᆞ니라. 黑繩은 거믄 노히니 ᄆᆞᆺ 처ᅀᅥᄆᆡ 더ᄇᆞᆫ ᄇᆞᆯ로 모ᄆᆞᆯ ᄉᆞ라 셜버 드위텨 디게 ᄒᆞ고 더ᄇᆞᆫ 쇠 노ᄒᆞ로 시울티고 더ᄇᆞᆫ 돗귀와 톱과로 바히ᄂᆞ니라...(월석 1: 29) *손톱 *노ㅎ(-줄) / 바히다(베다)

☞ .. 合은 어울씨니 두 큰 블 묏가온ᄃᆡ 녀코 두 山이 어우러 ᄀᆞ라 ᄀᆞᆯ리 ᄃᆞ외ᄂᆞ니라. ᄭᅮᆯ喚은 더우를씨니 쇠 城ㅅ 가온ᄃᆡ 고ᄅᆞᆫ 브리어든 그에 드리텨든 우르ᄂᆞ니라. 大ᄭᅮᆯ喚은 더우를씨라. 熱惱ᄂᆞᆫ 더ᄇᆡ 셜ᄫᆞᆯ씨니 罪人ᄋᆞᆯ 글ᄂᆞᆫ 가마애 드리티ᄂᆞ니라. 大熱惱ᄂᆞᆫ 熱惱ㅣ 더을씨라...(월석 1: 29)

☞ .. 阿鼻ᄂᆞᆫ 쉴씃ᄉᆡ 업다ᄒᆞ논 마리니 東西南北과 네모콰 아라우희 다 큰 브리어든 罪人을 그에 드리티ᄂᆞ니라. 이 여듧 地獄이 各各 여듧 寒氷 地獄과 여듧 炎火 地獄이 眷屬 ᄃᆞ외야 잇고 또 혀근 地獄이 그지 업스니 그어긔 受苦ᄒᆞᆯ 싸ᄅᆞ미 各各 罪ᄋᆡ 져그며 쿠므로 劫數를 디내ᄂᆞ니 ᄆᆞᆺ 重ᄒᆞᆫ 짜ᄒᆞᆫ ᄒᆞᄅᆞᆺ內예 八萬四千 디위ᄅᆞᆯ 주그락살락 ᄒᆞᄂᆞ니라...(월석 1: 29) *-락-락/ 디위(번)/

☞.. 寒氷은 ᄎᆞᆫ 어르미오 炎火ᄂᆞᆫ ... 」(월석 1: 29)

☞ ᄃᆞ리 감ᄯᅩᄂᆞ니 須彌山이 ᄀᆞ리면 바미라. 東方앤 持國天王「持國은 나라 가질씨니 西天 마래 提頭賴砒ㅣ라. 西天은 부텨 나신 나라히니 中國으로 西ㅅ 녀길씨 西天이라 ᄒᆞᄂᆞ니라. 中國은 가온ᄃᆡ 나라히니 우리나랏 常談애 江南이라 ᄒᆞᄂᆞ니라. 中國에션 中國을 하ᄂᆞᆳ 가온ᄃᆡ라 ᄒᆞ고 부텻 나라ᄒᆞᆯ 西ㅅ 녁 ᄀᆞᄉᆡ라 ᄒᆞ야 西天이라 ᄒᆞ거든 부텻 나라해션 부텻 나라ᄒᆞᆯ 하ᄂᆞᆳ 가온ᄃᆡ라 ᄒᆞ고 中國을 東녁 ᄀᆞᄉᆡ라 ᄒᆞ야 東土ㅣ라 ᄒᆞᄂᆞ니 土ᄂᆞᆫ 짜히라」 南方앤 增長天王「 增은 더을씨오 長은 길씨니 西天마래 毗留勒叉ㅣ라」 西方앤 廣目天王「廣目은 너븐 누니니 西天마래 毗留博(박)叉ㅣ라」 北方앤 多聞天王이니「多聞은 만히 들일씨니 福德 일후미 四方애 들일씨라. 西天 마래 毗沙門이라」 이 四天王도 須彌山 허리예 잇ᄂᆞ니라.(월석 1: 30)

☞ 須彌山 뎡바기예 忉利天이 잇ᄂᆞ니 忉利天內예 三十三天이니 가온ᄃᆡ ᄒᆞᆫ 天이오 四方애 여듧곰 버러 잇거든 帝釋이 가온ᄃᆡ 위두ᄒᆞ야 잇ᄂᆞ니라.「帝釋은 西天마래 釋迦提婆因陁羅ᄅᆞᆯ 조려 닐온 마리니 어딘 하ᄂᆞᆳ 님그미라 혼 ᄠᅳ디라」(월석 1: 31)

☞ 이 우희 夜摩天「 夜摩ᄂᆞᆫ ᄀᆞ장 됴ᄒᆞᆯ 씨라」 兜率陁天「兜率陁ᄂᆞᆫ 足ᄒᆞᆫ 곧 알씨니 最後身 菩薩이 이 하ᄂᆞ래 나샤 ᄀᆞᄅᆞ치실씨 欲心에 足ᄒᆞᆫ 고ᄃᆞᆯ 아ᄂᆞ니라. 最後身은 ᄆᆞᆺ 後ㅅ 모미니 ᄂᆞ외 죽사리 아니ᄒᆞ야 부텨 ᄃᆞ외실씨라. 心은 ᄆᆞᅀᆞ미라」 化樂天「化樂은 지ᅀᅥ 즐길씨니 즐거ᄇᆞᄆᆞᆯ 제 밍ᄀᆞ라 제 즐기ᄂᆞ니 누네 고ᄇᆞᆫ 것 보고져 ᄒᆞ면 제 머군 ᄠᅳ드로 고ᄇᆞᆫ 거시 ᄃᆞ외야 뵈며 귀예 됴ᄒᆞᆫ 소리 듣고져 ᄒᆞ며 고해 됴ᄒᆞᆫ 내 맏고져 ᄒᆞ며 이베 됴ᄒᆞᆫ 차반 먹고져 ᄒᆞ며 모매 됴ᄒᆞᆫ 옷 닙고져 호매 다 제 먹논 ᄠᅳ드로 ᄃᆞ외야 나ᄂᆞ니라」(월석 1: 31-32)

☞ 他化自在天이 次第로 노피 이쇼ᄃᆡ「他化ᄂᆞᆫ ᄂᆞ미 지슬씨오 自在ᄂᆞᆫ 自得ᄒᆞᆯ씨니 이 하ᄂᆞᄅᆞᆫ ᄂᆞᄆᆡ 지ᅀᅮᆫ 거슬 아ᅀᅡ 제 즐기ᄂᆞ니 긔 魔王이라」 다 구루믈 브터 虛空애 잇ᄂᆞ니 이 여슷 하ᄂᆞ리 欲界 六天이라.「界ᄂᆞᆫ ᄀᆞᄉᆡ라 ᄒᆞ며 ᄀᆞᆯ비라 ᄒᆞ논 마리니 이 여슷 하ᄂᆞᆳ ᄀᆞ자이 欲心을 몯 여흰 ᄒᆞᆫᄀᆞᆯ비니 人間도 欲界예 드니라」(월석 1: 32) *들다(속하다)

☞ 이 우희 또 初禪 三天에「初ᄂᆞᆫ 처ᅀᅥ미오 禪은 寂靜ᄒᆞᆯ씨니 이 하ᄂᆞᆯ히 欲心 아니 뮈워 ᄀᆞ마니 잇ᄂᆞ니라. 寂靜은 괴외ᄒᆞᆯ씨라」 梵衆天「衆은 할씨니 梵王ㅅ 한 百姓 사ᄂᆞᆫ 하ᄂᆞᆯ히라」 梵輔天「輔는 도ᄇᆞᆯ씨니 梵王 돕ᄂᆞᆫ 臣下 사ᄂᆞᆫ 하ᄂᆞᆯ히라」 ..(월석 1: 32)

☞ 大梵天「大梵天은 梵王 사ᄂᆞᆫ 하ᄂᆞᆯ히니 梵王이 娑婆 世界예 ᄆᆞᆺ 위두ᄒᆞ야 잇ᄂᆞ니라」 또 三禪三天에 少光天「少光은 光明이 져글씨니 二禪天中에 光明이 ᄆᆞᆺ 져그니라」 無量淨天「無量淨은 조호미 그지 업슬씨라」 徧淨天「徧淨은 다 조ᄒᆞᆯ씨니 몸 ᄲᅮᆫ 아니라 世界 다 조ᄒᆞ니라」 또 四禪九天에「九는 아호비라」 福生天「福이 날씨라」 福愛天「福ᄋᆞᆯ ᄉᆞ랑ᄒᆞ야 즐길씨라」 廣果天「너븐 福앳 果報ㅣ라」 (월석 1: 33) *ᄉᆞ랑ᄒᆞ다 =愛

☞ 無想天「想은 ᄆᆞᅀᆞ매 너길씨니 無想은 ᄆᆞᅀᆞ매 먹논 일 업슬씨라. 無想天은 廣果天과 ᄒᆞᆫᄃᆡ 잇ᄂᆞ

니라」無煩天「無煩은 煩惱 업슬씨라」無熱天「熱은 더블씨니 혀근 煩惱ㅣ 熱이라」善見天「善은 잘홀씨니 善見은 잘볼씨라」善現天「現은 나톨씨니 ᄆᆞᆯ군 거우루 ᄀᆞᆮᄒᆞ야 여러 가짓 양ᄌᆞ를 잘 나톨씨라」色究竟天「色은 비치니 얼구를 니ᄅᆞ니라. 究竟은 ᄆᆞᄎᆞᆯ씨니 얼굴 이쇼ᄆᆞᆯ 이 하ᄂᆞᆯ히 ᄆᆞᄎᆞᆯ씨 色究竟이라 ᄒᆞ니라. 無煩天 브터 잇ᄀᆞ장ᄋᆞᆯ 不還天이라 ᄒᆞᄂᆞ니 不還은 아니 도라갈씨니 ᄂᆞ외야 欲界예 아니 도라갈씨라. ᄯᅩ 淨居天이라 ᄒᆞᄂᆞ니 淨居ᄂᆞᆫ 조ᄒᆞᆫ 모미 사ᄂᆞᆫ ᄃᆡ라 혼 ᄠᅳ디라」(월석 1: 34)

☞ 次第로 우희 잇ᄂᆞ니 初禪 三天은 네 天下ᄅᆞᆯ 두퍼 잇고 二禪 三天은 小千世界ᄅᆞᆯ 두퍼 잇고 三禪 三天은 中千 世界ᄅᆞᆯ 두퍼 잇고 四禪 九天은 大千 世界ᄅᆞᆯ 두퍼 잇ᄂᆞ니 이 열여듧 하ᄂᆞᄅᆞᆯ 色界 十八天이라 ᄒᆞᄂᆞ니라.「이 여듧 하ᄂᆞ리 欲心 더러ᄇᆞᆷ믈 여흰씨 모도아 梵世라 ᄒᆞ고 色蘊 얼구리 이실씨 色界라 ᄒᆞᄂᆞ니라. 蘊이 다ᄉᆞᆺ 가지니 色蘊은 뷔여 ᄆᆞᆰ디 몯ᄒᆞ야 빗 이쇼미오 受蘊은 受苦ᄅᆞ ᄇᆡ며 즐거ᄇᆞ며 受苦ᄅᆞᆸ도 즐겁도 아니호ᄆᆞᆯ 바ᄃᆞᆯ씨오 想蘊은 여러가짓 일 스칠씨오 行蘊은 힝뎍ᄒᆞᆯ씨오 識蘊은 ᄀᆞᆯ히 지버 알씨라. 五蘊을 五陰이라도 ᄒᆞᄂᆞ니 蘊은 모ᄃᆞᆯ씨오 陰은 ᄀᆞ리두플씨니 ᄒᆞᄂᆞᆫ 일 이쇼ᄆᆞᆯ 모도아 眞實ㅅ 性을 ᄀᆞ리둡다 ᄒᆞᄂᆞᆫ ᄠᅳ디라.」(월석 1: 35) * -도(씨끝과 토씨 기능처럼 쓰임 : 씨끝 생략 사례 --즐겁+도)

☞ 이 우희 ᄯᅩ 四空處에「四空處는 네 뷘 싸히라」空處「 이 하ᄂᆞᄅᆞᆫ 色ᄋᆞᆯ 슬히 너겨 뷔유ᄆᆞᆯ ᄇᆞ터 잇ᄂᆞ니라」識處「色과 뷔욤과 슬히 너겨 識ᄋᆞᆯ ᄇᆞ터 잇ᄂᆞ니라」(월석 1: 35)

☞ 無所有處「無所有ᄂᆞᆫ 잇ᄂᆞᆫ 것 업슬씨니 이 하ᄂᆞᄅᆞᆫ 色과 空과 識心괘 다 업고 識性이 잇ᄂᆞ니라」非想非 非想處「識性을 뮈우디 아니ᄒᆞ고 ᄯᅩ ᄀᆞ장 더 업게 ᄒᆞ니 그러나 識을 ᄇᆞ터 업게 홀씨 乃終내 진딧 업수미 아니니 잇ᄂᆞᆫ ᄃᆞᆺ 호ᄃᆡ 잇디 아니호미 스쵸미 아니오 업슨ᄃᆞᆺ 호ᄃᆡ 업디 아니호미 스홈 아뇨미 아니라. ...(월석 1: 36)

☞ .. 이 四空處ㅣ 業果앳 굴근 비츤 업고 定果앳 ᄀᆞᄂᆞᆫ 비치 잇ᄂᆞ니 ᄒᆞᆫ 比丘ㅣ 無色定에 드렛다가 나아 虛空ᄋᆞᆯ ᄆᆞᆫ지거늘 ᄂᆞ미 무로ᄃᆡ ᄆᆞ스글 얻ᄂᆞᆫ다. ..(월석 1: 36)

☞..對答호ᄃᆡ 내 몸 얻노라 ᄒᆞ니 이 定得ᄒᆞ야도 모ᄆᆞᆯ 몯 보니 四空處ㅣ 業果色 업수믈 아랇디로다. ..(월석 1: 36)

☞ .. 定果色은 定力이 至極ᄒᆞᆯ씨 一切色에 다 自在ᄒᆞ야셔 定으로 色을 니ᄅᆞ왇ᄂᆞ니 經에 닐오ᄃᆡ 菩薩ㅅ 고해 無色界옛 香ᄋᆞᆯ 마ᄐᆞ시다 혼 말도 이시며 舍利弗 涅槃ᄒᆞᆶ 저긔 無色界옛 ᄂᆞᆫᄆᆞ리 ᄀᆞᄅᆞ ᄇᆡ ᄀᆞ티 ᄂᆞ리다 혼 말도 이시며 無色 諸天이 世尊ᄭᅴ 저ᄉᆞᆸ다 혼 말도 이시며 無色이 머리 좇다혼 말도 이시며 無色界 天에 이셔 香과 곳과ᄅᆞᆯ 비ᄒᆞ니 香이 須彌山 ᄀᆞᆮ고 고지 술위ᄠᅴ ᄀᆞᆮ다 혼 말도 잇ᄂᆞ니 이러ᄒᆞᆫ ᄠᅳ든 聲聞 緣覺ᄋᆡ 몰롤 이리라. (월석 1: 36-37)

☞ 聲聞은 제 空ᄋᆞᆯ 得ᄒᆞ야셔 至極ᄒᆞᆫ 고ᄃᆞᆫ 다 빗 업스니라 ᄒᆞ건마ᄅᆞᆫ 大乘은 世界 밧긔도 오히려 法性色이 잇거니 이 四天이 ᄒᆞᆫ갓 뷔리여. 이럴씨 聲聞緣覺ᄋᆡ 돌롫고디라. 聲聞緣覺은 아래 사겨 잇ᄂᆞ니라. 業은 이리니 됴ᄒᆞᆫ 일 지스면 됴ᄒᆞᆫ 몸 ᄃᆞ외오 사오나ᄇᆞᆫ 일 즈스면 사오나ᄇᆞᆫ 몸 ᄃᆞ외요미 業果ㅣ라. 大乘은 ᄅᆞᆯ 술위니 菩薩ᄋᆞᆯ 가ᄌᆞᆯ비고 小乘은 聲聞緣覺ᄋᆞᆯ 가ᄌᆞᆯ비ᄂᆞ니라.」(월석 1: 37)

☞ 이 내 하ᄂᆞᄅᆞᆯ 無色界 四天이라 ᄒᆞᄂᆞ니라.「色蘊이 업슬ᄲᅮᆫ뎡 受想行識은 잇ᄂᆞ니라. 欲界 色界

無色界를 三界라 ᄒᆞᄂᆞ니라.」(월석 1: 37) *-ᄲᅮᆫ뎡

☞ 이 하ᄂᆞᆯ들히 놉디옷 목수미 오라ᄂᆞ니 四天王 목수미 人間앳 쉰히를 ᄒᆞᄅᆞ옴 혜여 五百히니 그 우히 漸漸 하아 四禪天에 가면 ᄆᆞᆺ 져근 목수미사 一百스믈 다ᄉᆞᆺ 大劫이오 非想非 非想天에 가면 목수미 八萬大劫이라.(월석 1: 37-38)

☞ 世界 地輪 아래 金輪이 잇고 金輪 아래 水輪이 잇고 水輪 아래 風輪이 잇ᄂᆞ니「地ᄂᆞᆫ 짜히니 짜해 자ᄇᆞᆫ 것 시루미 술위예 사루미 ᄀᆞᄐᆞᆯ씨 地輪이라 ᄒᆞᄂᆞ니 金輪 水輪 風輪 다 ᄒᆞᆫ가지라. 金은 쇠오 風은 ᄇᆞᄅᆞ미라」(월석 1: 38)

☞ 世界 처섬읾 저긔 大梵天이 ᄆᆞᆺ 몬져 일오「이 世界 고텨 ᄃᆞ욇 저긔 初禪이 조차 고텨 ᄃᆞ욀씨 처섬읾 저긔 大梵天이 ᄆᆞᆺ 몬져 이ᄂᆞ니 二禪으롯 우흔 이 世界 여러번 고텨 ᄃᆞ외야사 ᄒᆞᆫ적곰 고텨 ᄃᆞ욀씨 이 世界 이로매 아니브텨 니ᄅᆞ니라」(월석 1: 38-39) *-으롯

☞ 버거 녀느 梵輔天과 梵衆天과 欲界六天엣 他化自在天 化樂天 兜率天 夜摩天이 次第로 일오, 버거 下界예「下界ᄂᆞᆫ 아랫 世界니 忉利天으롯 아래ᄅᆞᆯ 다 닐온 마리라」大風輪이 닐어늘 光音天이 한비ᄅᆞᆯ ᄂᆞ리와 므리 下界예 ᄀᆞᄃᆞᆨᄒᆞ야 기픠 十一億 二萬由旬이러니「億은 열 萬이라. 由旬은 마ᄉᆞᆫ 里라. ᄇᆞᄅᆞ미 아니 닐면 믈 담곪 거시 업스릴씨 風輪이 닐어늘 므리 디니 風輪에 담겨 므리 ᄀᆞ뱃더니라.」(월석 1: 39)

☞ 後에 ᄇᆞᄅᆞ미 믈 우흘 부러 三億二萬 由旬은 金輪이 ᄃᆞ외니 水輪이 八億由旬이러라. (월석 1: 390

☞ ᄯᅩ 虛空애셔 金輪 우희 한비와 므리 ᄀᆞᄃᆞᆨᄒᆞ고 靑蓮花ㅣ 一千이 냇거늘 四禪天이 아랫 劫 이ᄅᆞᆯ 보고 自中에 닐오ᄃᆡ「自中은 ᄌᆞ갓 냇 中이라」이 世界옌 千佛이 나시리도소니 이 劫 일후므란 賢劫이라 ᄒᆞ져.「賢은 어딜씨라」(월석 1: 40)

◉ 衆生이 ᄃᆞ톨씨 平等王ᄋᆞᆯ 셰ᅀᆞᄫᆞ니 俱曇氏 그 姓이시니 겨지비 하라ᄂᆞᆯ 尼樓ㅣ 나가시니 釋迦氏 일로 나시니.(월석 1: 40)

◉ 長生인 不肖ᄒᆞᆯ씨 ᄂᆞᆷ이 나아간 ᄃᆞᆯ 百姓ᄃᆞᆯ히 ᄂᆞᆷᄋᆞᆯ 다 조ᄎᆞ니 尼樓는 賢ᄒᆞᆯ씨 내 나아간ᄃᆞᆯ 아바님이 나ᄅᆞᆯ 올타ᄒᆞ시니.(월석 1: 41)

☞ 그 後에 ᄇᆞᄅᆞ미 므를 부러 地輪이 ᄃᆞ외니 ᄆᆞᆺ 貴ᄒᆞᆫ 氣韻이 須彌山이 ᄃᆞ외오「忉利天 四王天도 이제사 나니라」버근 氣韻은 닐굽 山이 ᄃᆞ외오 ᄆᆞᆺ 사오나ᄫᆞᆫ 氣韻은 네 天下ㅣ ᄃᆞ외야 우브터 녯 양ᄌᆞ로 다 일어늘「녯 世界 이롬도 이 ᄒᆞᆫ가지라」光音天에 이셔 福 다ᄋᆞᆫ 光音天이 ᄂᆞ려와「福ᄋᆞᆯ 닷가 하ᄂᆞᆯ해 나앳다가 福이 다ᄋᆞ면 도로 ᄂᆞ리ᄂᆞ니라」(월석 1: 41)

☞ 사ᄅᆞ미 ᄃᆞ외니 歡喜로 밥 삼고「歡喜ᄂᆞᆫ 즐길씨라」모매 光明도 이시며 虛空애 ᄂᆞ라ᄃᆞᆫ니며 남진 겨지비 업고 노ᄑᆞ니 ᄂᆞᆺ가ᄫᆞ니 업더니 모다 世界예 와 날씨 일후믈 衆生이라 ᄒᆞ니라.(월석 1: 42)

☞ 그저긔 ᄲᅡᆺ 마시 ᄲᅮᆯ ᄀᆞ티 ᄃᆞᆯ오 비치 히더니 그 衆生이 머거보고 맛내 너겨 漸漸 머그니 모매

光明도 업스며 ᄂᆞ라ᄃᆞᆫ뇸도 몯ᄒᆞ고 만히 머근닌 양ᄌᆡ 셩가싀더니 그제ᅀᅡ ᄒᆡ ᄃᆞ리 처섬 나니라.(월석 1: 42) *양ᄌᆡ셩가싀더니 (?)

☞ 그 後에ᅀᅡ 외니 올ᄒᆞ니 이긔니 계우니 홀 이리 나니라.(월석 1: 42) -니(이음씨끝)

☞ 그 後에 ᄲᅡᆺ 마시 업고 열ᄒᆞᆫ 쩍ᄀᆞ튼 ᄲᅡᆺ 거치 나니 비치 누르고 마시 香氣 젓더니 그 머근 後에ᄂᆞᆫ 서르 ᄂᆞᆷ 업시울 이리 나니라.(월석 1: 42-43) * ᄲᅡᆺ 겆(이름씨인듯)

☞ ᄲᅡᆺ 거치 업거늘 ᄲᅡᆺ 술히 나니 그 머근 後에ᄂᆞᆫ 여러가짓 샹 ᄃᆞᄫᆡᆫ 이리 나니라.(월석 1: 43)

☞ ᄲᅡᆺ 술히 업거늘 ᄲᅡᆺ 기르미 나니 마시 수울 ᄀᆞᆫ더라.(월석 1: 43)

☞ ᄲᅡᆺ 기르미 업거늘 버거 너추렛 여르미 나니 버혀 든 ᄲᅮᆯ ᄀᆞ튼 지니 흐르더라.(월석 1: 43) * 너출(넝쿨) *진(진물)

☞ 버거 두 가지옴 가진 葡萄ㅣ 나니 마시 ᄯᅩ ᄃᆞ더니 그 머근 後에 우숨 우ᅀᅵ 나니라. 葡萄 업거늘 粳米 나ᄃᆡ 한 됴ᄒᆞᆫ 마시 다 ᄀᆞᆺ더니 거플 업고 기리 닐굽 치러니 그 머근 後에ᅀᅡ 물보기ᄅᆞᆯ ᄒᆞ니 남진 겨지비 나니라.(월석 1: 43)

☞ 그 時節에 情欲 한 사ᄅᆞ미 겨지비 ᄃᆞ외야 「情은 ᄠᅳ디니 情欲은 ᄆᆞᅀᆞ매 나ᄂᆞᆫ 貪欲이라」 그ᅦ 밍ᄀᆞᆯ오 남진 ᄃᆞ려 드러 더러ᄇᆞᆫ 이ᄅᆞᆯ ᄒᆞ거늘 衆生이 보고 더러ᄫᆞᆯ쎠. 엇뎨 이런 더러ᄇᆞᆫ 일 ᄒᆞ거뇨 ᄒᆞᆫ대, 그 남지니 뉘으처 ᄯᅡ해 업더옛거늘 그 겨지비 밥 가져다가 머기고 자바 니르쳐니 그 後로 夫妻라 혼 일후미 나니 그제마 아기 나히ᄅᆞᆯ 始作ᄒᆞ니라.(월석 1: 44)

☞ 그 後에ᅀᅡ 놀애 브르며 춤 츠며 롱담ᄒᆞ야 남진 어르기ᄅᆞᆯ ᄒᆞ며 ᄆᆞᆺ 몬져 瞻婆城을 ᄊᆞ니 「瞻婆ᄂᆞᆫ 곳 일후미니 비치 노ᄅᆞ고 香氣 저ᄉᆞ니라. 이 城의 이 고지 할씨 일훔 지흐니라」 城 ᄊᆞ 사리ᄅᆞᆯ 始作ᄒᆞ니라.(월석 1: 44)

☞ 그저긔 粳米ᄅᆞᆯ 아ᄎᆞᆷ 뷔여든 ᄯᅩ 나 나조히 닉고 나조히 뷔여든 ᄯᅩ 나 아ᄎᆞᆷ ᄆᆡ 닉더니 게으른 ᄒᆞᆫ ᄂᆞ미 서르 ᄀᆞᄅᆞ쳐 사나ᄋᆞᆯ 머구릴 뷔여오니 그 粳米 거플도 나며 이운 그르히 잇거늘 衆生ᄃᆞᆯ히 슬허 울오 받도 제여곰 ᄂᆞᆫ호며 집도 제여곰 짓더니 그 後에 제 ᄇᆞᆯ란 ᄀᆞ초고 ᄂᆞᄆᆡ 것 서르 일 버수믈 ᄒᆞᆯ씨 외니 올ᄒᆞ니 決ᄒᆞᆶ 사ᄅᆞ미 업서 모다 平等王ᄋᆞᆯ 셰ᅀᆞᄫᆞ니 姓이 瞿曇氏러시니 (월석 1: 45) *뷔다/ 머구릴 (먹+우+리+ㄹ?)/ 거플 / -란(으란)

☞ 「平等은 ᄀᆞᄐᆞᆯ씨니 ᄒᆞ녁츤 公事 아니ᄒᆞᆯ씨라. 이 王ㅅ 일후믄 摩訶三摩多ㅣ시니 小瞿曇ㅅ 後身이실씨 ᄯᅩ 姓을 瞿曇氏라 ᄒᆞ니라. 後身은 後ㅅ 모미니 前生애 ᄃᆞ니다가 後生애 다시 난 모미 後身이라」(월석 1: 45)

☞ 그제ᅀᅡ 낛 바도ᄆᆞᆯ ᄒᆞ니 그럴씨 일후믈 刹利라 ᄒᆞ니라. 「刹利ᄂᆞᆫ 田地ㅅ 님자히라 ᄒᆞ논 ᄠᅳ디라」(월석 1: 46)

☞ 그저긔 閻浮提 天下ㅣ 가ᅀᆞ며고 孔雀ᄋᆡ ᄭᅩ릿 빗 ᄀᆞ튼 프리 나고 八萬 나라해 ᄆᆞᄉᆞᆯ히 盛ᄒᆞ야 ᄃᆞᆯ기 소리 서르 들여 ᄒᆞᆫ ᄀᆞ새 니엣고 天下애 病이 업서 사ᄅᆞᄆᆡ 나히 그지 업시 오라더니 사ᄅᆞ미

漸漸 邪曲ᄒᆞ야 모딘 일 지슨 다ᄉᆞ로 餓鬼 畜生 地獄애 가아 나며「餓鬼ᄂᆞᆫ 주으린 귓거시라. 畜生은 사ᄅᆞᄆᆡ 지븨셔 치ᄂᆞᆫ 즘ᄉᆡ이라.」(월석 1: 46)

☞ 모딘 일 보고 됴ᄒᆞᆫ 일 닷ᄀᆞ니ᄂᆞᆫ 漸漸 東西 北洲와 四王 忉利天에 가나니「洲ᄂᆞᆫ 믌가온ᄃᆡ니 四天下ㅣ 다 바롤셔 밀씨 四洲라 ᄒᆞᄂᆞ니라」이리 ᄒᆞ야ᅀᅡ 世界 다 이니 긔 成劫이오「成은 일씨니 처섬브터 다 일 ᄊᆞᄉᆡ 成劫이라」다 이러이싫 저근 住劫이라.「住ᄂᆞᆫ 머므러 이실씨라」(월석 1: 46-47)

☞ 그저긔 王이며 百姓ᄃᆞᆯ히 正티 몯ᄒᆞ야 사ᄅᆞᄆᆡ 목수미 滅ᄒᆞ야「滅은 덜씨라」十萬히 ᄃᆞ외니 이러트시 滅ᄒᆞ야 一百히예 ᄒᆞᆫ 히옴 조려 열히 ᄃᆞ욇ᄀᆞ장 조료ᄆᆞᆯ 滅이라 ᄒᆞ고 열히로셔 도로 더어가ᄃᆡ 아ᄃᆞ리 아ᄇᆡ 나해셔 곱ᄀᆡ곰 사라 八萬히 ᄃᆞ욇ᄀᆞ장 더우믈 增이라 ᄒᆞᄂᆞ니 ᄒᆞᆫ 번 增으로셔 滅ᄒᆞ고 滅ᄋᆞ로셔 增홇 ᄉᆞᄉᆡ롤 增滅劫이라 ᄒᆞᄂᆞ니「ᄀᆞ장 增ᄒᆞ면 八萬 히롤 살오 ᄀᆞ장 滅ᄒᆞ면 열히롤 살리라」(월석 1: 47)

☞ 世界 다 인 後로 스믈 디위 增滅ᄒᆞ면 無間 地獄브터「無間은 쉴 ᄊᆞᄉᆡ 업슬씨니 西天 마래 阿鼻라」숨튼 거시 ᄒᆞᆫ 낫도 업서 欲界 六天 니르리 다 뷔여 힛 光이 倍倍히 더벙「倍ᄂᆞᆫ 고ᄇᆞᆯ씨라」모시 다 여위며 남기 다 이울며 두 히 돋다가 세 히 도ᄃᆞ면 바ᄅᆞ리 다 여위며 닐굽 히 도ᄃᆞ면 뫼히 여들히여 다 노가디여 더ᄇᆞᆫ 氣韻이 初禪天에 ᄲᅬ야 初禪天이 二禪天에 올아 가리니 이ᄅᆞᆯ 壞劫이라 ᄒᆞ고 .世界 다ᄒᆞ야 딘 後ㅣ면 空劫이라 ᄒᆞᄂᆞ니「壞ᄂᆞᆫ ᄒᆞ야딜 씨오 空은 뷜씨니 世界 ᄒᆞ야딣 ᄉᆞᄉᆡᄂᆞᆫ 壞劫이오 ᄒᆞ야딘 後에 뷔여 이싫 ᄉᆞᄉᆡᄂᆞᆫ 空劫이라」(월석 1: 48)

☞ 壞劫 空劫 ᄉᆞᄉᆡ 成劫 住劫과 ᄒᆞᆫ가지라.「이 ᄒᆞᆫ 큰 劫이니 일ᄒᆞ면 賢劫이 다ᄋᆞ리라」(월석 1: 49)

☞ 이리 火災 ᄒᆞᆫ 後에 ᄯᅩ 世界 이렛다가 다시 成住壞空ᄒᆞ야 ᄯᅩ 火災ᄒᆞ리니 이리곰 火災호ᄆᆞᆯ 여듧 번ᄒᆞ면「火災ᄂᆞᆫ 븗 災禍ㅣ니 히 만히 도도ᄆᆞᆯ 니ᄅᆞ니라. 災禍ᄂᆞᆫ 머즐씨라」 二禪天에셔 므리 나아 아래 ᄀᆞᄃᆞᆨᄒᆞ얫다가 믈도 업ᄂᆞ니라.(월석 1: 49) *멎다(머즐다)-재난

☞ 이리 水災ᄒᆞᆫ 後에 다시 火災 여듧 번짜히ᅀᅡ ᄯᅩ 水災ᄒᆞ리니 이리곰 水災호ᄆᆞᆯ 여듧 번ᄒᆞ면 三禪天에셔 ᄇᆞᄅᆞ미 니러 아래 ᄀᆞᄃᆞᆨᄒᆞ얫다가 ᄇᆞᄅᆞᆷ도 업ᄂᆞ니라.「 ᄒᆞᆫ 風災劫 ᄉᆞᄉᆡ예 水災劫이 여들비오 ᄒᆞᆫ 水災劫 ᄉᆞᄉᆡ예 火災劫이 여들비오 ᄒᆞᆫ 火災劫 ᄉᆞᄉᆡ예 成住壞空 네 劫오 成住壞空ㄱ ᄉᆞᄉᆡ예 各各 스믈 增滅이라」(월석 1: 49-50)

☞ 四禪天으롯 우흔 세 災 업수ᄃᆡ 그엣 宮殿과 諸天괘 ᄒᆞᆫ 쁴 냇다가 절로 ᄒᆞᆫ 쁴 업ᄂᆞ니라.「宮殿은 지비라. 諸天은 여러 하ᄂᆞᆯ히라」(월석 1: 50)

☞ 디나건 劫 일후미 莊嚴劫이오 이젯 일후미 賢劫이오 아니왯ᄂᆞᆫ 劫 일후미 星宿劫이니 이 賢劫 첫 부텨는 拘樓孫 如來시고.「 如는 ᄀᆞᄐᆞᆯ씨니 本來ㅅ ᄆᆞᆯ곤 性이 가ᄉᆡ디 아니ᄒᆞ야 처섬 곧ᄒᆞ야 이실씨오 來ᄂᆞᆫ 올씨니 如來ᄂᆞᆫ 本來ㅅ 性을 가져 世間애 오샤 正覺ᄋᆞᆯ 일우시다 ᄒᆞᄂᆞᆫ ᄠᅳ디라. 正覺은 正히 알씨니 그르 알면 外道ㅣ오 正히 알면 부톄시니라」(월석 1: 50-51)

☞ 둘차힌 拘那含牟尼佛이시고 세차힌 迦葉波佛이시고 네차힌 釋迦牟尼佛이시니 우리 스스이 네 찻 부톄시니라.(월석 1: 51)

☞ 다숫차힌 彌勒尊佛이 나시리라.「梅哩麗耶를 그르 닐어 彌勒이시다 ᄒᆞᄂᆞ니 梅哩麗耶ᄂᆞᆫ 慈氏라 혼 ᄠᅳ디니 ᄂᆞᆷ 어엿비 너기실씨라...(월석 1: 51)

☞ ..디나건 오란 劫에 弗沙佛ㅅ 時節에 두 菩薩이 겨샤ᄃᆡ ᄒᆞᆫ 일후믄 釋迦牟尼시고 ᄒᆞᆫ 일후믄 彌勒이러시니 釋迦ᄂᆞᆫ ᄌᆞ걋 ᄆᆞᅀᆞ미 나 닉디 몯ᄒᆞ샤도 弟子ᄃᆞᆯ히 ᄆᆞᅀᆞᄆᆞᆫ 다 닉고 彌勒은 ᄌᆞ걋 ᄆᆞᅀᆞ미 다 니그샤도 弟子ᄃᆞᆯ히 ᄆᆞᅀᆞᄆᆞᆫ 몯다 닉더니 弗沙佛이 너기샤ᄃᆡ ᄒᆞ나히 ᄆᆞᅀᆞᄆᆞᆫ 수ᄇᆡ 고티려니와 모ᄃᆞᆫ ᄆᆞᅀᆞᄆᆞᆫ ᄉᆞᆯ리 몯 고티리로다...(월석 1: 51)

☞ ..ᄒᆞ샤 釋迦 菩薩이 ᄉᆞᆯ리 成佛케 호리라 ᄒᆞ샤 雪山寶窟애 드르샤 火禪定에 드르샤 큰 光明 펴고 겨시거ᄂᆞᆯ 釋迦 菩薩이 藥 키라 가 보ᅀᆞᄫᆞ시고 깃ᅀᆞᄫᆞ며 信ᄒᆞ며 恭敬ᄒᆞ샤 ᄒᆞᆫ 발로 고초 드듸여 셔샤 부텨 向ᄒᆞᅀᆞ바 손 고초샤 ᄒᆞᆫ ᄆᆞᅀᆞᄆᆞ로 밤낫 닐웨ᄅᆞᆯ 긊즉도 아니ᄒᆞ야 보ᅀᆞᄫᆞ시며 偈로 讚歎ᄒᆞᅀᆞᄫᆞ샤ᄃᆡ 하ᄂᆞᆯ 우 하ᄂᆞᆯ 아래 부텨 ᄀᆞᄐᆞ시니 업스시며 十方 世界예도 ᄯᅩ 가ᄌᆞᆯ비리 업스시니 世界예 잇ᄂᆞᆫ 거슬 내 다 보ᄃᆡ 一切 부텨 ᄀᆞᄐᆞ시니 업스샷다 ᄒᆞ시니.이리 ᄒᆞ샤ᄆᆞ로 아홉 큰 劫을 걷내ᄲᅮ여 成佛ᄒᆞ시니라. .(월석 1: 52)

☞..그저긔 釋迦 菩薩은 衆生 濟渡ᄒᆞᆯ ᄆᆞᅀᆞ미 하실ᄊᆡ 弟子ᄃᆞᆯ히 ᄆᆞᅀᆞ미 닉고 彌勒 菩薩은 ᄌᆞ걔 爲ᄒᆞᆫ ᄆᆞᅀᆞ미 하실ᄊᆡ ᄌᆞ걋 ᄆᆞᅀᆞ미 닉더시니라. 禪定은 아래 사겨 잇ᄂᆞ니라」(월석 1: 52)

<月印千江之曲 第一 : 釋譜詳節 第一 楻 百八張 > 끝